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를 지나며 날을 맞으며 하나님께 주관을 하시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동방정교회 1,000년만에 분열!

미 언론, 6일 우크라이나정교회 독립으로 갈라진 세계정교회 분열원인 분석 보도

동·서 교회가 분리되고 신·구교가 나뉘어 이제 기독교 최대의 분열이 현실화됐다. 작년 10월, 러시아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와의 결별을 선언했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교구에 자치권(an independent canonical church)을 지난 6일 정식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산하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좌 우크라이나 정교회(키예프교회),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 등 크게 3개 교파로 나뉜다. 그간 세계 정교회는 러시아에 종속적인 모스크바 산하 우크라이나 정교회만 합법으로 인정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이를 뒤집어 키예프교회를 합법

교회로 인정했다. 동시에 1686년 이후 러시아 정교회가 행사 해온 키예프 대주교 임명권도 박탈하기로 했다. 키예프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키예프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결정을 계기 삼아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를 병합하고 모스크바 산하 교회까지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결국 1000년 전 기독교 대분열(Great Schism)이 재연됐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계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속에 동방 정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세계 정교회는 대략 2억6000만명, 그중 러시아 신자는 1억명에서 최대 1억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콘스탄티노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가 우크라이나 정교회 독립 '토모스(교회령)'에 서명하고 있다.

면서 "두 제국이 사라진 후로도 지금까지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교회가 신자 수(12,000 교구)를 믿고 독선적인 태도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 독립교회 수장들이 1054년 대분열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2016년 그리스 크레타 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키릴 대주교는 "몇몇 독립교회들이 여전히 크림 병합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그리스의 정교회 전문 온라인매체 오소독시아 편집장 안드레아스 루다로스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신자가 가장 많은 우리가 정교회를 지배해야 한다

는 것이 모스크바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콘스탄티노플뿐 아니라 다른 독립교회들도 이와 같은 '러시아의 오만'에 불만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한편 키릴 교구나 푸틴 대통령은 콘스탄티노플의 이번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면 러시아 정교회 위상은 흔들린다. 푸틴의 '종교 제국주의'도 타격을 받는다. 그간 푸틴은 정교회 신앙을 슬라브 민족 정체성으로 앞세우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를 한 울타리 안에 가두려 했다.

(5면으로 계속)

"자유민주주의의 기수... 국가주의, 포퓰리즘과 싸웠다"

FT, '2018 올해의 인물' 로 헝가리 태생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조지 소로스 선정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가 전설적인 좌익 운동 후원자이자 억만장자 자선사업가인 조지 소로스를 2018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 편집위원회는 헝가리 태생의 미국 투자자인 소로스가 평생 '자유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 명분을 지지했으며 매일 자신을 공격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세력'을 상대로 싸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로스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주된 요인으로 '그가 대변하는 가치'를 꼽았다(FT Person of the Year: George Soros: The philanthropist has become a standard bearer for liberal democracy, an idea under siege from populists).

파이낸셜타임스는 2018년 12월 19일 신문에 게재된 소로스 프로필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기수"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열린사회는 냉전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부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까지 사방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 소로스는 지난 30년 이상 자선사업을 통해 권위주의와 독



재, 인종차별주의, 불관용과 싸웠다. 그는 오랫동안 열린사회와 언론의 자유, 인권을 위해 헌신하면서 독재정권과 특히 유럽에서 득세하는 국수주의 포퓰리스트들의 분노를 샀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칭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틴 데 일 국제 대학교

Tyndale International University

2019년 봄 학기 신(편)입생 모집

어느 신학교를 결정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틴데일 국제 대학은 바른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선도하는 경건과 학문의 중심입니다. 철저한 학사관리로 본 대학에서의 학업은 쉽지 않지만 졸업 후에는 자부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개강예배 2019년 1월 28일(월) 오후 6시(TIU 소강당)

강의일자 2019년 1월 28일 ~ 5월 9일 오후 7시 (매주 월, 화, 목 오후 7:00)

입학문의 TIU 교무처 (213)595-3181, (213)393-7389

모집학과

Certificate of Missiology(C, Miss)

Bachelor of Theological Study (B.Th.) (신학 학사)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T.S.) (성서신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M.Div.) (목회학 석사)

Master of Theology (Th.M.) (신학석사)

Doctor of Ministry (D.Min.) (목회학 박사)

김명도 박사 기념 도서관

온라인 강의

장학금 지원 (유자격자)

충장: Frank Smith, Ph.D.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브러이 기초, 엘라어 기초 4주 특별한 개설 예정

Sponsored by YALA Mission.com

www.TyndaleInternationalUniversity.org

tiu4270@gmail.com

● 발행인 칼럼 ●

친숙을 넘어 익숙으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이제는 장기간 두 아들이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서 자라났다. 아무래도 미국적 방식과 문화에 더 친숙(親熟)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다. 피자도 아니다. 스테이크도 아니다. 김치찌개이다. 왜 그럴까?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친숙한 문화 속에도 익숙한 습관은 그 진가(眞價)를 발휘(發揮)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Here) 그리고 지금(NOW)”에서 살아가는 친숙한 환경은 여전히 이성(理性)과 합리성(合理性)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거기에 감성(感性)과 소비(消費)와 인공지능(人工知能)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환경이다.

도대체 우리의 다음세대를 잠식(蠶食)해가는 친숙한 현대 문화의 토대(土臺)는 무엇일까? 찰스 다윈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약육강식(弱肉強食) 세상에서 자애로운 창조주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적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다. 현대인이려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의 종교적 위치에 있다.

사르트르는 어떤가? 그는 “실존(實存)은 본질(本質)에 앞선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이 땅에 목적(本質) 없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실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한 여러 근대의 과학적, 사상적 토대위에 현대의 신앙 같은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왜 다윈이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뿐이겠는가? 유신론을 버리고 유물론으로 치닫게 한 산업혁명도 쇼핑에 친숙한 현대문화의 토대이다. 기독교가 서둘러 다음 세대를 영원한 것에 익숙한 세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친숙한 현대문화에 휘둘러 사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一助)할 것이다.

영원한 것에 익숙한 세대의 실재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삶에 익숙한 세대로 세우는 것이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저들의 삶에 익숙해져서 그 어떤 친숙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예배를 그리워하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도 어머니가 정성으로 계속 만들어 준 김치찌개를 좋아하듯,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세대로 세워야 한다.

Calvin 칼리지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책 “Imaging the Kingdom(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에서 ‘지성의 성화’에 치중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습관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說)해되었다. 예배드림이 다음세대에게 계속 강요되고 또 실제적으로 반복 훈련되어 마침내 익숙한 습관이 된다면 친숙한 세상 문화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자녀들을 내놓기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세상의 친숙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뜨겁게 드리는 익숙한 예배밖에 없다.

희망은 공포 증오 극복하게 하는 증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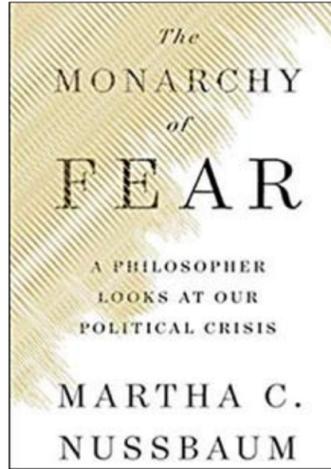
뉴스위크,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제시한 미국 당면문제 해결책 제시

증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흥기(興起)난사, 미투 운동, 밀입국자 부모-자녀 격리, 기후 변화, 탄핵... 어두운 세계가 갈수록 더 음울해지는 듯하다. 미국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실재 없이 뜨는 긴급뉴스 알림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치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움츠러든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작가 이르샤드 만지는 “미디어에 종사하는 우리는 사람들의 눈

길을 끌고, 클릭 수를 늘리고,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치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주로 갈등의 이야기를 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둘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분노와 혐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에게 물었다(President Trump's Tactics of Fear And Loathing Can Be Defeated: An Interview With Martha C. Nussbaum).



어서 평소 하던 대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혹감과 공포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뉴스를 들었을 때 패닉상태에 빠졌다. 유권자가 분열된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공포를 느꼈을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깨달았다. 유익한 공포도 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서

그리고 배설물과 채액 등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본능적 반응인 혐오의 바탕을 이룬다.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예외 없는 진리다. 우리는 인종적 또는 남녀간 하위 그룹 또는 계급에 혐오를 투사한다. 다른 그룹을 동물 취급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그들을 더 복종시키는 것이 사회적 종속과 차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우호함을 느낀다. 우리는 천사, 그들은 동물이 될 수 있다.

생리와 출산을 하는 여성은 모든 문화에서 항상 그런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정치참여, 향의시위...신앙, 인문학, 예술은 희망 양성소 냉소적 반응은 무가치...젊은 세대 지구 지키기 노력해야

리고 향산된 자아인식을 제시하는 사상가에게 주어진다.

도덕 철학자이자 시카고대학 법학 교수인 누스바움은 정의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이론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녀는 철학을 이용해 시대적 담론을 발전시키는 데 몰두한다.

누스바움은 그런 취지로 5편의 책을 저술했다. 최근의 저서 ‘공포의 군주제(The Monarchy of Fear)’는 감정의 관점에서 현재의 정치 위기, 고대 이후 분노·혐오·선망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데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흥미롭게 고찰한 책이다.

누스바움은 현대 학자들이 모두 정치논쟁을 넘어 상아탑에 안주한다는 비아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필시 고대 철학의 대가들에게서 영감을 얻기 때문인 듯하다. 그녀는 “고대 전통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정치적 이슈와 유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네카는 로마 네

로 황제의 멘토였으며 황제가 끔찍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려 했다. 정치 현실을 피할 길은 없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공포가 정치 담론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년 사이 귀청이 떨어져나가고 몸에 거부반응이 일어날 만큼 소음이 커졌다. 누스바움은 분명 공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정치 전략에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능하지만 그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탄핵설이 비등하는 요즘 어쩌면 더 시급한 문제도 없는 듯하다. 트럼프 시대에 분노를 ‘정화’하고 희망을 찾는 법에 관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포의 군주제’에서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 느꼈던 깨달음에 관해 썼다. 친구들과 떨어져 일본에 있

로 의논하지 못하도록 막는 감정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공포를 어떻게 정의하나?

가장 원시적인 감정이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 세상으로 나오는 갖난아가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다. 인생을 살다가 공포로 무기력하게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건 모두 그들 잘못이야, 그 여자들 또는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들끓고 있어”라고 말한다. 정당하게 항의하거나 건설적인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만만한 표적에게 감정을 쏟아 붓는다.

공포는 또한 죽음의 필연성,

육체를 상징하게 됐다. 흑인은 동물에 더 가깝다는 인종차별의 오랜 비유가 있다. 그리고 유대인은 종종 곤충에 비유됐다. 카프카의 ‘변신’은 한 남자가 어떻게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혐오는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 때때로 고개를 드는 감정이다. 이전 사라졌거나 생각했던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로, 이민자를 곤충 등의 침입에 비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9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9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9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신당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9년 5월 17(금) - 20(일)
2) 고시 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에스겔 36:22-31
(2) 신약 주해 - 히브리서 12:1-13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 관점에서 “대체 신학”을 평가하라.
(4) 설교 본문 - 마태복음 28:16-20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고시기를 지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검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iOTExegesisPaper.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9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9년 3월 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3회 총회기간(5월21일-24일) 중에 합격통지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7일-20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Rev. Jae Hyun Han / Email: jhanrev@gmail.com
주소: 1173 Elm Ave, Seaside, CA 93955 U.S.A. / 전화: (831) 920-7043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702) 296-9193, driho@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김재열 목사 서기: 권혁천 목사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자유민주주의의 기수... 국가주의, 포퓰리즘과 싸웠다”

(1면에서 계속)

파이낸셜타임스는 그의 초기 사업 경력을 소개했다. 그는 1956년 미국으로 이민했고, 1969년에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1973년엔 퀴트 인다우먼트 펀드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했다.

1979년 소로스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

책) 아래서 살아가는 흑인 학생들을 돕는 등 헤지펀드에서 쌓은 부를 자선사업에 쏟아 붓기 시작했다. 1993년 소로스는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을 설립해 2018년까지 사재 320억 달러를 기부했다. 이 재단은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며 ‘민주주의, 투명성,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소로스 프로필은 또 그를 수년 동안 괴롭힌 악명 높은 우익 또는 반유대인주의 음모도 지적했다. 2018년 10월엔 소로스의 자택으로 사제폭탄이 배달되기도 했다. 소로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브렉시트 지지자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소로스가 후원한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다) 등 다양한 비판자들의 표적이 됐다. 그는 헝가리 태생 유대인

으로서 나치와 관련된 선전 공격에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

소로스는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를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등 사실 난 거의 모든 이유로 비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악마라는 소리도 들었다. 극단주의자들이 내에 관한 거짓 음모론을 믿고 나를 죽이려 든다는 사실이 아주 가슴 아프다.”

희망은 공포 증오 극복하게 하는 증후군!

(2면에서 계속)

좌파에선 보수 진영이 공포의 논리를 퍼뜨린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공포에는 자신이 피해를 보리라는 믿음이 요구되며 선동적 웅변으로 쉽게 조작된다. 그러나 우파에만 무책임한 선동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무책임한 보수파가 상당히 많다.

“공포의 군주국에서” 나는 트럼프와 대비되는 인물로 몇몇 민주당원이 아니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9·11 테러 후 대단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발언했다.

그는 이런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추적할 것이지만 모든 종교나 국민을 죄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 일을 모두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는 국민감정의 책임감 있는 수호자였다. 그런 점에서 특히 뛰어났던 지도자의 예를 들자면?

프랭클린 D. 루스벨트(FDR) 대통령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감정의 수호자였다. FDR은 가난한 사람이 고통 받는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 지배 계급의 태도는 “그런 고통을 자초한 건 게으른 종자인 그들”이라는 식이었다. 그는 미국에는 빈민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빈민이 존경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보여주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고통 받는 건 나쁜 행동이나 게으름 탓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뉴딜 정책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릴 예술가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일례로 도로시아 랭은 미국 빈민의 가장 인상적인 사진들을 찍었다. 존 스

타인백도 같은 맥락에서 소설을 썼다. 이는 중요한 일이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대중의 분노를 어떻게 생각할지 보여주는 모델이다. 수호자로서 그의 문제는 사뭇 달랐다. 자신의 운동뿐 아니라 일반 대중 속에 어떻게 감정을 형성하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분노에는 끔찍한 잘못이 있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보복적 성격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 길은 미래지향적이거나 혁신적 또는 급진적이지 않고 단순히 손쉬운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여겼다.

이어 그는 “분노를 품고 우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들의 분노를 정화해 표출하도록 하고 정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같은 다른 감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필요 없지만 그들의 인간성 그리고 선행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인 호의를 가져야 한다. 사람은 항상 결정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는 백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들은 ‘자급부족’이라는 부도수표를 우리에게 남겼지만 언제든 당신들의 빚을 갚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훌륭한 방법이었다. 그에게 그런 고매하고 시적인 웅변의 힘이 없었다면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했을 수 있다.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가능하

는 데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절대적 군주제 아래서 군주가 복종과 충성만을 강요한다면 군주의 명령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의존은 신뢰와 다르다. 신뢰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 자신의 프로젝트와 미래를 외부에 노출시켜 다른 사람의 처분에 따를 수 있게 하려는 의지를 뜻한다.

잘못된 결혼의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공포로 지배한다면 그 사람의 가혹한 행위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희망과 미래가 모르는 사람 손에 달렸다는 사고에 의존한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이 항상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신뢰가 있다. 그러려면 상대 진영 사람들이 뭔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신뢰는 종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신을 외부에 노출시켜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것은 정치 절차를 향한 특정한 태도를 요구하는 큰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공격한 데 큰 당혹감을 느낀다. 부정투표가 이슈라기보다 그에 관해 고장난 레코더처럼 무한 반복하는 게 더 나쁜 일이라는 증거가 많다. 미디어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도 마찬가지다. 뉴스(적어도 그중 다수)가 진실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절차가 주요하려면 거기에 의존해야 한다.

기독교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적 연사에 대한 그들의 지지는 어떤가?

종교는 상당히 강력한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그

런 배타적 연사에 맞서 싸워 왔다(2008년 대선 캠페인 중). 오바마가 복음파들에게 지지를 요청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그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올바른 일이었다. 대중의 특정 그룹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증오발언의 자리는 없다고 말해야 한다.

희망이 어떻게 공포의 해독제가 되나?

흔히 희망은 공포의 반대말로 간주되며 그런 일면도 있다. 그러나 철학적 전통에선 양자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모두 몹시 불확실하고 결과가 자신에게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뭔가가 될 것을 요구한다.

스토아학파는 불확실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만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쳤다. 완전한 스토아학파(자신의 이성과의 지혜의 순응)라면 두려움이나 희망이 없을 것이다. 아주 많은 게 급속도로 폭풍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상에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반응은 좋지 않았다. 나처럼 다른 사람이나 조국 또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공포와 희망을 모두 품게 될 것이다.

키케로는 로마공화국을 사랑한 스토아 학파였다. 그는 로마공화국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 한번은 딸의 죽음과 공화정의 몰락을 애도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그만 두고 스토아학파답게 행동하라고 하자 그는 말했다. “아닙세, 이건 중요한 일이야. 내가 비통해 해야 하네.” 우리는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희망컨대 정치적 자객들에게 암살당하지 않고 말이다! 그는 거의 말 그대로 자객들의 칼날에 목을 내밀었다.

(16면으로 계속)

시론 “현재가 선물이다!”



민경업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쿵푸 팬더’. 쿵푸의 실력이 잘 늘지 않고 다른 동료들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을 낙심한 주인 공 팬더 포가 자기 집에 돌아갔다고 스승인 우그 웨이에게 말하자 스승은 이렇게 타일렀다. “너는 너무 과거와 미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오

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gift)이래. 바로 그것이 현재(present)를 선물(gift)이라고 부르는 이유야.” 너무 멋진 대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하다. Present is present! 희망으로 가득 찬 기해년이 시작되었다. 황금돼지라는 말 속에 다분히 기복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황금으로 된 돼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뜻이다. 태평양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라도 내가 낚아 올린 것만이 내 것인 것처럼 백 년을 산다 해도 세월을 아껴서 잘 사용한 것만 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허송세월일 뿐이다.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이 3시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했듯이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보게 될 것이고,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결국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여준 시간관 역시 현재를 가장 중시하였다.

우선 과거를 잘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는 인간적으로 화려한 자신의 과거를 개에게나 던져줄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것들을 얻고자 할 때는 대단한 것으로 여겼었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 부질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예수를 만나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다고 여겨졌다. 목회현장에서 인간적인 배경이 좋아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초라한 경력 때문에 일평생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자신의 운명을 닦고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대하고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 때문이었다. 바꿀 수 없다면 수용하는 것이 지혜고 용기다. 변할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애틀 애틀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과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잊어야 한다. 잘한 것을 잊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잘 못한 것 역시 잊어야 하는 이유는 상처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현재를 충실히 뛰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빚어내는 결과물이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데 미래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지만 얼마든지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모든 것이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든 결과 역시 내 책임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심판하신다.

(5면으로 계속)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내가 내말을 하면 그들은 들을 것이다

나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교회는 다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전통이 있어서 청빙 받는 목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만일 청빙된 목사가 새로 받은 비전이 있어 무엇인가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럴 바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찾아왔다.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실력과 인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마찰이 생겨 목회에서 실패하는 것이 생각난 것이다. "그런 목사님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나같이 경험도 없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성도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의 기도에서 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물음을 계속 던졌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응답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

"그래 네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네 말을 하지 않고 내 말을 전한다면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 응답은 참으로 나의 머리를 깨닫이 정리하여 주었고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였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고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던 때가 생각났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던 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모세는 자신은 늙고 무능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셨다. 그 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보고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나 하는 것이었다. 그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알려주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 것"을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시키는 대로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목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쉬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말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라는 것을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목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를 향하여 하라고 명하는 것을 전했고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전했

다. 그리고 어떤 행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말씀으로 검증된 것만 하자고 했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하지 말라고 했다. 그 결과는 목회 28년동안 성도들과 부딪쳐 본적이 없었으며, 우리교회는 이민교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28년 동안 분열이 없는 교회로 지내오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교회에서는 28년 동안 그 어떤 목적으로도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 멀리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흠이 없는 제사물을 쉽게 사기 위해 양과 소등을 팔았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드러야 하는 속전을 세겔로 바꾸어주기 위하여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금을 보며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성전은 점점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성전에 온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장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 어떤 물건도 교회에서 매매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단지 무엇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목회 28년을 지나면서 개혁시 기도중 하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음을 지금도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따라 목회할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고 새해 1월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성경에 저축되는 것은 하지 말고 성경이 명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면 모든 계획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김경열 목사

(뉴욕영안교회)



켜 말씀하신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주일을 '내 성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2)또한 주일을 '즐거움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에 즐거움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3)또한,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존귀한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시면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2)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죄 짓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고 필요 이상의 오락

작 10분전에는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른 날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주일이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주일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다고 변명하지 말고 세상이 다 다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에게

다.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이 준비된 주일을 지켜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에게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2)땅의 높은 곳에 올려 주신다(사58:14중). 땅의 높은 곳은 축복을 말합니다. 진급을 말합니다. 땅에서 잘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될 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자손이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3)야곱의 업으로 길러 주신다(사58:14). 야곱의 업이란 야곱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불화로 집을 떠나 갈 때에 맨손으로 밤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물질의 복 (2)장수의 복 (3)자녀의 복 (4)영적인 복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의 신앙을 확실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은 복 있는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과 육이 잘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구별된 날이요, 다른 날과 다른 하나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일년내내 일평생 주일성수하다 복받고 가문을 살리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영안교회: (917)963-9356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 주었던 실화를 소재로 만든 영화 '불의 전차'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텔은 영국의 단거리 선수로 100m 금메달 유망주였는데 그가 출전할 종목의 경기가 하필 주일에 예정됐습니다. 이에 에릭 리텔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주일에 치르는 경기는 신앙 양심상 출전할 수 없다고 하여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국가의 배신자, 웅졸한 신앙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 주의 이름으로 달리기 위하여 수년간 피나는 노력을 한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날 열린 400m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400m를 뛰어 본 적이 없는 에릭 리텔의 경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예선을 꼴찌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낯선 종목인 400m에서 세계신기록으로(47초06)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우승으로 일약 대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명세를 떨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중국 텐진에 선교현장으로 훌연히 떠났습니다. 이 작품은 1982년 제5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작품·각본 등 5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삼상 2:30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을 존중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온전한 주일성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일을 잘 성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주일은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출20:10).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심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2)주일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계1:10).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주일이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 사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니다.

3)안식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출20:11).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도 영도 쉬어야 합니다. 영이 쉬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주일은 영과 육이 함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안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의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출애굽기 20장 8-11절, 이사야 58장 13-14절)

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식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출20:11).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라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사 58:13-14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움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일을 가리

고 금해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내 육신을 위한 일은 삼가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84:10에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별된 날이라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또한, 잘 준비하여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근대문화가 많이 발전하여 각자 여러 가지의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꼭 가야만 하는 결혼식 같은 것은 미리 가서 인사를 하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예배 시

은혜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3. 주일을 귀중하게 지킨 결과를 보세요(사58:14).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전도와 봉사하고 섬김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1)주일을 잘 지키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사58:14).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말은 '고상하다. 우아하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 앞에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상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입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10가지 이유 및 대책(상)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유는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이에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가치관형성이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롭고 건강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대신 아직까지 성경통독을 안한 자녀들이라면 초등학교생들부터 고등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신약을 6개월간 한번, 일년에 신약만 먼저 2번을 통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 번째 통독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에 대해 노트하면서 읽도록 하면 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두는 사진을 보내라는 압박이 쉬지 않고 가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자녀들이 그러한 압박 속에 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결국 압박에 굴복하고, 그 결과로 삶은 망가졌습니다. 사진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3. 신뢰와 위험의 이유로 투표, 음주, 운전 등의 권리를 어린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면서 그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허락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도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

아이들이 포르노를 처음 보는 평균(average) 연령은 현재 11살이지

력이 포함됨)들을 보고 있습니다.

4. 자녀들이 성적 폭력을 스마트폰의 포르노를 통해 배우고 시도하기 때문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포르노를 통해 성적 폭력에 노출됩니다. 이전 저희 Tvnext article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아이들끼리 그들 사이에서의 성학대가 조사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경보를 울리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포르노에서 본 것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점점 더 많이 학부모와 교육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안되는 10가지의 종합적 이유들

1. 아이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십대들의 71%가 스마트폰 활동을 부모로부터 감추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포르노에 빠져있거나 "그것"에 연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말 다행으로 여기는데, 실상은 완전히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사실이 돼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2. 사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영원히 남기 때문
Vanity Fair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낸시 조 세일즈가 그녀의 충격적인 책인 '아메리칸 걸스'에서 소셜 미디어와 십대들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 대도시부터 시골 Bible Belt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누드 셀카나 sexting을 보내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온) 여고생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 모

만 공립학교 수업과 숙제가 컴퓨터화 되어지면서 어리게는 5살 때 보는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9살 때 더 자주 접하게 됐다가 포르노 중독까지 걸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그들을 얼마나 열심히 감시하거나 스마트폰 기능을 차단하려고 노력하든(완전히 할 수도 없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의 성적 타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온라인에 접속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이제 포르노를 통해 어린 소년, 소녀들을 봅니다 (Tvnext 홈페이지에 어린이들끼리 보는 포르노에 대한 리포트 참조). 그들 중 대다수는 이전 세대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비정상적 성적폭

5.스마트폰을 만드는 이들도 이 기계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

우리 사회는 아직 이 스마트폰 기술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스마트폰들과 이 스크린을 만드는 바로 그 실리콘 전문가들은 이 장치들이 아이들에게 불건전한 어두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젊은이들에게 위험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 계속)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개혁해 목회하는 40대의 목사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약하여 목사 사례금은 생각지도 못하며 교회 헌금은 렌트비와 유틸리티로 거의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저는 주중에는 작은 개인 비즈니스를 제 처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목회했지만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현 상황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목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모 목사

A: 목사님, 개척교회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하나님이 올리는 크게 축복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이론에 수용, 전념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cceptance & Commitment for healing입니다. 지난날의 나를 힘들게 한 과거의 문제를 상처와 실수, 실패는 Acceptance 즉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인정하되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과 사명을 위해 Commitment 즉, 헌신하고 전념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목사님께 2가지를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1)스피드, 즉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빨리 그리고 많이 보다 든든한 기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목회의 주안점을 두십시오. 1983년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떠난 대한항공 007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날다가 소련 전투기에 맞아 추락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격추를 당해 비행기가 추

목회는 속도보다 방향, 성공보다 승리와 섬김

락하면서 한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함"을 교훈해줍니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재앙이 됩니다. 개척교회는 자기 자신과의 피 마르는 싸움이며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교회 부흥의 임계질량이 차가까지 기초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굳건히 다지고 수보다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2)성공보다 승리와 섬김의 목회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은퇴하시기 전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때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동안 대답을 못하시다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직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뵈야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저는 교우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릴 때 인생은 불우하고 불행했습니다. 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술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와서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여성 지도자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대부분 병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먹고 돌보는데 썼습니다. 자신은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하다 결국은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고생하다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그의 책상 앞에 가서 그 책상 앞에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렇습니다. 목회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와 섬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동방정교회 1,000년만에 분열!

(1면에서 계속)
한 예로 그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기념하는 크렘린 연설에서 키예프를 "모든 러시아 도시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988년 정교회를 국교로 도입하면서 세례 받은 곳이 키예프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키예프 공국은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 모두 자신들의 역사로 여기는 나라다. 푸틴이 종교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종속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회 독립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와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나서 키예프와 모

스크바는 서로 독립된 관계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침묵 중인 다른 독립교회들도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교회의 합병성과 독립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열 결정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전면적인 전쟁으로까지도 확산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3면에서 계속)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나온다. 죄악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 심지어 우수마발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변경하셨다. 이 역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예다.

원의 날이로다." 아무리 내가 형편없이 넘어졌다 해도 현재 다시 일어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준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다. 과거도, 미래도 다 현재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계속 유지하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의 방향이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유턴하라. 자동차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었다면 유턴 사인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안전한 곳에서 해야 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

님 앞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이 붙이고 다는 범퍼스티커에 이런 것이 있다. "God allows U-turn anywhere! Do it right now!"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유턴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present)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present)이다. 세상은 과거에 매여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선물을 허비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를 선물로 주셔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다.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과거는 아름답게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산한 힌디(THE DIASPORA HINDI)



인도 밖 외국에서 살고 있는 180만명의 힌디어 사용 인구 중 대다수는 점경국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고 있다. 그 외 다른 나라에도 큰 힌디어 사용 공동체들이 있다. "Hindi"라는 용어는 이 사람들의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복합체를 적절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힌디는 단순히 언어상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힌디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은 중앙아시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 집단들의 집합체다. 그들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힌두-무슬림 경쟁구도를 포함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면에서 '집단공동체'의식(group identity)'을 갖고 있다.

인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높은 카스트 신분계층이며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많은 부분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아 들인다.

삶의 모습

힌디어는 인도-아리아계 언어다. 많은 힌디 단어들은 산스크리트어(Sanskrit, 범어)에서 빌려온 것이고, 데바나가리 문자(Devanagari letter)로 쓰여진다. 예전에 우르두어족(대부분 무슬림)과 힌디어족(대부분 힌두교)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로 이어졌다. 그 때 이후 지금까지 두 집단 사이에는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서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힌디어는 인도의 공용어가 됐고, 우르두어는 파키스탄의 공용어가 됐다.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현재 "인도-파키스탄인"이라 불리는 힌디어를 사용하는 85,000명의 무슬림들이 있다. 불행하게도,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될 때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힌디어계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집단으로 나뉜다.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힌두교도들은 "카스트"라 불리는 4개의 주요 사회 계층으로 나뉜다. 이 집단들은 "정결과 불결"의 원리에 기반을 둔 계층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 신분서열상으로 볼 때, 세습되는 4개의 집단은 승려와 학자들인 "브라만", 통치자들과 군인들인 "크샤트리아", 상인과 전문직업인들인 "바이샤", 노동자들과 하인들인 "수드라"다.

이 4개의 카스트들은 각각 그 안에 수많은 하위 카스트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하위 카스트들은 다시 작은 단위들로 나뉜다.

카스트는 직업 외에 관습과 풍속과 습관 등에 근거를 둔 문화집단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위 카스트들과 그 아래 작은 단위들로 구성된 힌두 사회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른 카스트 간에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다. 비록 브라만이 위대한 종교적이고 학술적인 카스트로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었던 교육과 학습은 현재 힌두의 모든 종족과 계층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힌디어는 사업과 교육과 언론의 언어다. 힌디어족들은 새로운 거주지에서 점점 서구화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고기를 먹는다. 또한, 힌두 여인들은 이혼과 재혼의 권리를 가

지고 있다. 몇몇 남자들만이 여전히 "도티"(dhoti, 힌두 남자가 무릎을 덮도록 치마처럼 입는 흰색의 하의)를 걸친다. 그리고 여인들은 공식적인 행사 때나 이따금씩 "사리"(sari)를 걸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서구식 옷을 입는다.

무슬림의 힌디어족 여인들은 여전히 "푸르다"(Purdah)의 전통을 지키는데, 이것은 격리돼있다는 의미에서 몸 전체, 특히 눈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푸르다는 서구화와 도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약화된 격식의 다양한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다.

신앙

힌디어족의 대부분은 힌두교도들인데, 힌두는 종교라기 보다는 생활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한다. 그들은 신들을 달래고 제앙을 피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제사와 제물을 받쳐야 한다고 믿는다.

힌두교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다시 환생해 동물이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 중에는 동물의 모습을 한 것도 있다. 소는 신성시되고, 다른 동물들도 숭배된다.

"업"(karma)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영혼은 더 높은 신분으로 환생할 것이지만 사람이 악하게 산다면 그 영혼은 더 낮은 지위로 환생할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힌디어족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과 영화 "예수"가 있다. 그러나 힌두 사람들은 먼저 수백만의 거짓 신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무슬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기도만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호주연합교회 동성결혼 합법화...파장 우려

호주연합교회(UCA·Uniting Church of Australia)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지난 5일부터 도입됐다. 미국장로교(PCUSA)와 함께 한국 선교에 큰 기여를 했던 호주연합교회의 이 같은 결정이 한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연합교회는 지난해 7월 열린 15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사람의 결합'으로 조정하면서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이를 통해 동성간 결혼을 수용했다. 교단법엔 목회자들이 동성간 결혼식에서 주례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왔다. 다만 목사들의 동성결혼 주례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 교단이 목회자의 자율권은 인정한 셈이다.

결정 이후 교단 산하 6개 주 총회는 법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교단법에는 총회가 결의한 안건에 대해 과반이 넘는 주 총회가 반대할 경우 재심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4대 2로 나와 총회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 교회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김도영 호주 에들레이드 페이넬로드연합교회 목사는 10일 "이미 지난 7월 총회 직후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여럿"이라며 "이민자와 원주민교회를 중심으로 동요가 심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앞으로 동성결혼 주례를 하지 않으려는 목사와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회마다 동성결혼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UCA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공식 협력 관계에 있다. 교단 관계자들은 UCA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공안 폭행에 교회지도자 아내 유산

중국 정부가 지역교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한 입산부가 유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선교계와 한국 순교자의소리(VOA·대표 현숙 폴리 목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지난해 12월 초 산둥성 칭다오(靑島) 시 '이른비엔약교회'를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한 크리스천 여성이 지난 5일 유산하고 말았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수감 중인 이른비엔약교회 지도자의 아내이다. 이 여성은 지난 달 9일 침대에 누워있다 공안에 끌려갔다. 연일 심문을 받았다.

공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결국 하혈을 했고 교인들이 이를 발견했다. 병원에서 유산했을 때 그녀는 임신 10주차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기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벨이 형 가인에게 살해된 것처럼 중국 공산당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아이를 잃은 뒤 그녀는 슬픔을 이겨내며 '길 위에(On the Way)'라는 시를 썼다. 그녀는 이 시에서 하나님이 아벨을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자신을 포함한 모두는 저 천국으로 아벨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 있다고 표현했다.

현숙 폴리 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는 "2019년 첫 번째 중국인 순교자"라며 중국의 기독교인 형제자매를 돕자고 호소했다. 폴리 대표는 "중국인 기독교교회를 자신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있다"며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중국교회의 형제자매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 미국 셋다운...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셋다운 장기화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달 22일 0시부터 시작됐던 이번 셋다운 사태는 13일을 맞으며 23일째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최장 셋다운을 기록한 정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다. 종전까지 최장 기간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빚어졌던 21일이었다. 하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셋다운 최장 신기록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셋다운 신기록의 주범으로 협상에서 타협보다는 오로지 승리만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략'을 지목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미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했던 자리에서 20분 동안 홀로 "승리"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시리아 내전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기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무치고 있으면 멕시코 장벽을 둘러싼 이민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비난의 화살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멕시코 국경장벽이 비인도적이며 불법 이민을 막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노(No)'만 외치는 민주당의 답답한 리더십을 향해서도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 글에서 "민주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민주당은 15분 이번 셋다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다. 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의회 권한 침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국가비상사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CBS방송이 미국 성인 14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3%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그가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들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다운 장기화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핵화 협상의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에서는 셋다운 여파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이 무급 휴가를 갖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2월 말-3월 초' 개최 시나리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늦게나마 해결에 집중하느냐 2차 회담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셋다운 사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개최가 확정되고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다운 중에도 출근하는 필수 인력들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 김정은에게 친서...美·北 긴박 움직임

미국과 북한이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2월 중순보다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주 중 미국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에선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막판 조율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14일 보도했다. CNN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인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주 중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친서를 주로 받던 입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자가 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자신이 직접 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소통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친서 외교'를 이번에도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보낸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흔들며 보이면서 "나는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두 번째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두 정상이 속도를 내자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파트너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고, 의제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맞교환하는 '비핵화 빅딜' 방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북·미 협상 사이에 낀 주한미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전격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기사가 미국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는 두 개의 협상에 끼여 있는 상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2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란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1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LAT는 "방위비 협상이 타협점을 못 찾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주장을 펼치면서 한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약 9602억원을 분담금으로 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LAT는 한국은 물가상승률분만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백악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어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협상 전술로, 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부를 내야 한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높은 분담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반 잭슨은 10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꼭두각시가 된다면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논쟁

이성과 신앙의 관계 규정을 위해 도입된 중세 스콜라 철학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강조점에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이성이 계시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전제로 시작되었다. 그 후에 활동한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성의 위치가 계시보다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실재론(實在論, Realism)과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 사이의 보편 논쟁을 통해 발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실재론이란, 플라톤의 이데아의 자리에 대입된 신이 인간 의식과 주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모든 사물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에우리게나(Eurigena), 안셀무스(Anselmus), 기욤(Guillaume) 등이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이와 반대로 유명론은 보편적 개념을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이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실체는 감각에 의해서 체험되는 각 개체이다. 요하네스 로스켈리누스(Johannes Roscellinus, 1050년 경-1120년경)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널리 보급되면서 스콜라 철학 전성기에는 유명론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세 교회는 자신들의 강조해온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유명론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주장을 허용하면 신이라는 보편적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모든 성도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신앙을 책임져야 하기에, 교황청이란 보편적 대개체의 역할이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유명론자들은 중세 교회에 의하여 이단으로 정죄되는 등 심한 탄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했다.

유명론의 재등장

스콜라 철학은 대표적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에 와서는 계시와 이성이 조화될 수 있다는 견해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를 조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도 플라톤의 근본 사상, 즉 이데아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재론과 유명론으로 분리되어 논쟁을 벌이던 스콜라철학자들이 혼동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천상에 대해서는 실재론을, 지상에 대해서는 유명론이 중심되어 소개된 아퀴나스의 통합적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퀴나스의 신학을 공격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

세 말기에 유명론자들이 재등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스코틀랜드의 스콜라 철학자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Johannes Duns Scotus, 1266년-1308년)를 꼽을 수 있다. 스코투스의 생애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다. 그는 1921년에 사제로 임명되었고, 1281년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보나벤투라(Bonaventura, 1221-1274)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마친 뒤 가르치는 일을

을 대한 인간의 지성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결국 스코투스가 주장한 사상의 핵심은 이성적 능력인 '의지'와 비이성적 능력인 '자연'의 구분이다. 자연에 속하는 능력은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작용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의지는 다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비결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

다. 오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매우 흥미롭다. '무적의 모험가' '무적의 학자'라는 별명이 있는가 하면 '오컴의 면도날'이란 말로 현재까지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한 마디로,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잘라버려야 한다는 그의 근본적인 접근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가장 효과적이며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설명을 위해 '단순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데,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오컴의 면도날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잘라버리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가 실제, 즉 하나님에 대한 개념까지 잘라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실재는 오직 이름뿐이라는 유명론의 보편개념을 끝까지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체가 아닌 보편은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불필요한 보편을 잘라낼 때에 개체에 대한 설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 셈이다.

계시 신앙의 상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신학을 위한 철학이라는 구도로 출발하였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며, 이성보다 계시가 앞선다는 전제를 포기할 수 없었다. 초기에는 이성은 신학을 잘 설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실재론과 유명론 사이의 보편논쟁은 결국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철학의 방법론의 적용 범위 설정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 것이다. 보편논쟁은 단순히 두 개의 다른 철학적 사고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 계시와 이성이 조화될 수 있다는 단계를 지나, 결국 계시가 없이 이성만으로도 신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펼쳐지면서 중세 교회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다.

중세 말기 교회의 스콜라 신학은 매우 복잡하고 사변적이었다. 교회는 신학 자체의 즐거움에 빠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실증에 대한 감각조차 상실하였다.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속되던 영적 어둠의 끝은 갈등과 혼동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다.

계시가 실종된 중세 말기 스콜라 신학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등장한 계몽주의, 특히 그 핵심이 되는 이성과 자율 중심의 이신론(理神論, deism) 중세 말기 스콜라 신학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이후 낭만주의와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 중심의 신학과 신앙이 대세이다. 역사 공부는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선명히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서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2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신학위한 철학구도로 출발한 스콜라신학, 이성 부각되며 계시 사라져 18세기 계몽주의는 중세말기 스콜라신학이 새로운 옷 입고 나타난 것

하였다. 1305년부터 파리에서 강의 하였으며, 그 후 독일 쾰른에서 강의 하기도 하였다. 그가 후대에 남겨준 글은 매우 사색적이며 철학적이다.

수학적 엄밀성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지성을 지녔던 스코투스는 아퀴나스의 신 존재 논증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비판을 가하였다. 왜냐하면, 논증의 원리는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의 신학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증명하는 모순적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스코투스는 누구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특히 그는 '자연과 기술의 구분', 자연적 형상과 지성적 형상의 특징적 차이로 적용시켜 자신의 독특한 유명론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전자는 자연적 사물 안에 있는 형상으로서 특정한 사물을 현실 속에 존재하게 하는 근원일 뿐 아니라 사물의 적용 방식을 규정하는 원리가 된다. 후자는 자연적 형상이 지성에 수용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이성은 이 특정한 사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규정한다. 이런 구분을 통하여 스코투스가 유도하였던 것은 특정한 사물 안에 있는 자연적 형상과 그 사물

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 안에서 그 때마다 생겨나는 개인의 경험이다. 특정한 외부의 결정 요인이 아닌 자신이 의지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스코투스는 의지를 지성과 구분한다. 지성을 명제에 대한 동의와 거부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능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지성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영역의 활동으로 이해한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의지적인 활동으로 인한 스스로의 결정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는 그의 사상은 아퀴나스의 신학을 공격하는 일에 유효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스콜라 신학의 몰락

역시 영국 출신 오컴의 윌리엄(William of Ockham, 1280-1349)에 의하여 스코투스의 유명론이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되었다. 그 역시 어려서부터 아퀴나스를 철저히 비판하였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속하였기에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자신 나름의 유명론을 전개하였다. 오컴은 1306년에 안수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하였

그는 중세 신학이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진리를 제대로 증명하려면 반드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은 후, 상대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 더욱 사실적으로 전달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급적 적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도리어 많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컴이 가장 먼저 비판한 것은 실재론자들이 주장한 이데아론이란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스코투스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영역과 초월의 영역은 독자적이며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강한 주장과 함께, 보편자가 각 개별 사물 안에 들어있다는 아퀴나스의 기본 사상은 극히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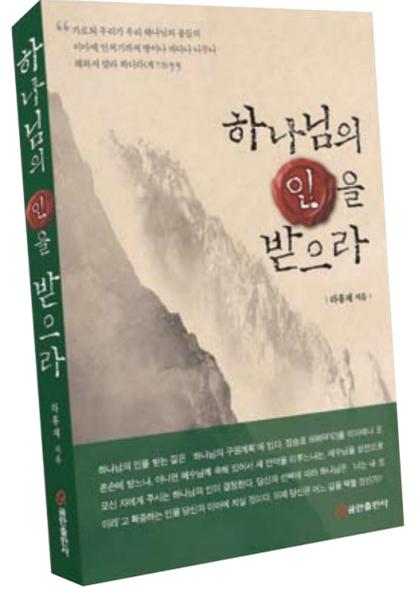
그가 주장한 유명론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객관적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리더십 코멘터리 (80)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New Year's Resolutions

새해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성경적 전통에서 바라보는 새해의 핵심 주제는 만사형통이나 대박 나는 한 해가 아니라 새사람이다. 새해를 맞아 영적리더는 지난 세월은 새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묻고, 새해는 새사람이 되어 새사람으로 살자는 결심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새해 결심을 한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는 빌 게이츠의 말대로 속도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는 말을 남겼다.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목적을 잘 정하는 것이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우선되어야 할 가치관은 어디로 나아

이유는 묻지 말고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게." 그 청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에 물을 담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는 물이 담기지 않았다. 교수는 결국 빈 소쿠리를 들고 온 그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빈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군? 인생이란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되지만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리더로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자
당신의 인생은 행복한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행복을 놓치지 말고 하루를 성실히 살라. 이것이야말로 지혜자들이 전해주는 인생 최대의 교훈 가운데 하

인간에게는 세 가지 격이 있다. 성격과 인격과 품격이 바로 그것이다. 성격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통해 고착되기 쉽다. 살아가면서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인격과 품격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새해에는 인격과 삶의 품격이 바뀐 새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당신의 내일과 미래는 한없이 밝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 인생의 최종 판단을 행하시는 창조주께서는 내 안에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신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리더는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리더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로 매일을 보낸다면 하늘로부터 받은 잠재력을 이루어낼 수 없다. 리더로서 언제나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2:15). 성경속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리더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영적리더의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이다. 이런 새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새해를 누리게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새해에는 고귀한 결심을 하자

빨리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 중요... 성실한 삶으로 숨겨진 재능 남김없이 활용... 꿈과 소망, 현실로 이뤄가라

갈 것인가를 정하는 방향이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새해를 맞이한 리더의 손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나침반이 쥐어져 있는가? 새해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자
새해는 중요한 것을 결심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멋진 새해 프로젝트를 세운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함양을 위해 꾸준한 독서를 다짐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과 이직을 위해 스펙 쌓기에 나서기도 한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성경통독, 가정예배, 성경필사, 성지순례 등의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얼마 전 미국 타임지가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의 4가지 결심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4가지 결심은 '금연, 다이어트, 운동, 스트레스 줄이기'라고 한다. 한 청년이 저명한 교수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교수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가 겁이 납니다." 지혜가 많은 교수는 그의 말을 듣더니 창고에 가서 먼지가 쌓여져 서려있는 낡은 소쿠리를 찾아서 그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

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기로 굳게 마음을 먹어라. 불행보다는 좋은 일을 상상하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좋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한다. 매시간 나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 대한 생각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승리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면 마음의 프로그램이 바뀐다. 날마다 생각을 바꿔나가면 좋은 일을 생각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란 낡은 습관은 자연이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다.

따뜻한 아랫목과 같은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땀이 나기라.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말라. 지혜자들이 주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열쇠는 배우고 성장하는데 있다. 끊임 없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리더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보물을 평생 동안 가두어 놓기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숨겨진 재능을 남김없이 활용해서 꿈과 소망을 현실로 이뤄나가라.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힘차게 도약하자. 전진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리더에게 나타날 것을 믿는다.

새해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자

새해의 정의는 무엇인가? 태양도 어제 뜬 그 태양이고, 달도 어제 진 그 달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어제 그 땅이다. 가족들도, 이웃들도, 차도, 옷들도 모두 어제 그대로이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라 부른다. 생각이 지난해를 만들었고 생각이 새해를 만들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결심으로 우리는 새해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새해의 결심을 한다.

새해에는 믿음 안에서 더 큰일을 기대하자. 리더로서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현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리더인 당신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새해에는 고귀한 결심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내라. 인생이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깊은 자기 발견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삶을 끌어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더가 되라.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감사를 심고 행복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고귀한 결심을 하는 날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행복 습관

새해가 밝아오면 그 새해를 열어주시는 분과 함께 그 분의 숨결을 알아차리면서 주제가 분명한 한 해를 시작하는 신령스런 사람이 되고 싶다. 늘 생각한 것보다 덜하며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또 한번의 기회로 새해를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분주하고 꼭 찬 나의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답게 사는 거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생각이 난다. 목사는 목사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사장은 사장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그 ~답게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성은 마음이 따뜻하고 예쁘고 안팎의 아름다움을 발하는 사람이라면 그 ~답게의 기준안에 웬만큼 꽤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다. 아내가 엄마가 살림을 잘 하면 모든 식구들이 살아난다는데... 친구들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깔깔 웃고 하면서도 왠지 가장 가까운 한 집에 사는 식구들끼리는 웃음의 감각도 잃어버리고 대화조차 막혀버려 할 말이 별로 없이 무뎠던 우리네들... 그렇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건강히 살아있다는 가슴 벅참만 회복한다면 우리의 웃음도 또 서로를 향한 배려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 우리의 영적 싸움터에서 갖고 있어야 할 최대의 무기는 뭘까? 마귀가 끄적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보다 더 센 무기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 말은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다지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저 일상의 습관처럼 맥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자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부합하게 사는 자가 아닐까. 그렇다. 오늘 행복한 자는 미래에도 행복하다. 그 말은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행복을 심는 자는 미래에도 행복 할 수밖에 없다는 말 일게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닦달하면서 '이놈아 이답에 다니 잘되라고 그래' 라고 아이들을 잡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오늘 행복하게 키워야 그들의 미래에도 행복한 어른이 되지 않을까.

우린 오늘 '행복하다, 신난다, 살맛났다, 힘이 난다, 사랑한다, 건강하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축복의 말들을 습관처럼 입에 배게 하자. 그란 난 시험들 시간이 없어 행복하게만 살아도 시간이 없어. 난 반드시 오늘 행복하게 살거야. 이보다 더 좋은 순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거야. 하하 난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싫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런 선포들이 우리 속사람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행복 습관을 갖고 올 한해를 신명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changsamo1020@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류기도회: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주일3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원훈련: 오전 10:00 화, 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아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 예배: 오후 8: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전 11: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금요성경공부: 화, 목, 금, 토, 일 오후 7시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후 6:30(토) 금요성경강좌: 화, 목, 금, 토, 일 오후 7:30 금요성경강좌: 화, 목, 금, 토, 일 오후 7:3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기도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목회서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지용덕 목사 (마주양곡교회)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의 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를 다산과 재물복의 상징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흥미 있는 이야기 자료가 되는 듯 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농부들의 살얼살이에 돼지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 주변 장 날 장터에 돼지새끼를 팔고 오는 농부들의 귀가 길은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결핍함이 많던 그 시절엔 돼지가주는 축복성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해 특히 황

금 돼지의 해라고 그냥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황금돼지의 해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은 황금돼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상이 가득하게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신학 사상이나 신앙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신 5:10).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히 6:14). 성경 창세기 26장에는 여호와와 복을 받은 복 받은 한 사람 곧 이삭을 증언하면서 그 복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복을 받는다고 증거 합니다. “이

삭이 그 땅에서 농사 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창26:12-13)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시는 복을 받아야 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복을 받으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복 된 한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엄청난 복을 받았었습니다.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므로’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는 백배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창 26:12). 이삭은 농사가 사업입니다 그 농사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므로 그 해에 백 배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창26:1) 그해에 농사를 하여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 조건일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악 조건일 지라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백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창26:13). 창대하다는 말은 수가 늘어나는 것이요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요 거부가 된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그러나 그 독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면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지만 건강하여 왕성하게 되고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주변 강국들과 화평하게 살게 되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창 26:28). 21세기 세계는 난리 분쟁 전쟁 소문과 소문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평화도 관계의 평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쟁과 소송돌이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과도 아비멜렉과 이삭의 평화 조약으로 인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황금 돼지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 급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해야 한 해가 형통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결실이 풍부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이 주최한 미주한인의날 기념예배에서 이우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후대에 미주한인 정체성 심어줘야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미주한인의 날 기념예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예배를 12월 13일 오후 11시 남가주세주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열었다. 최학량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장) 사회로 열린 기념예배는 안덕원 목사가 기도했으며 미란 메이머스 목사가 특송했다. 이어 이우호 목사가 ‘숨겨진 축복의 비밀’(사46:8-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우호 목사는 “지난 2005년

미주한인의 날이 공포됐고 12월 13일 연방하원에서 그리고 3일 뒤 연방상원에서 미주한인의 날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2006년 1월 13일 당시 부시대통령이 미주한인의 날을 선포했다. 미주한인의 날은 한인들의 이민 온 날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되도록 하자는 의미로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민자들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미국에 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하는가? 미국에 살면서 해야 할 미션이 무엇인가? 묻고, “미주한인의 날을 통해 우리가 할 것은 후대들을 위해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 후세들에게 신앙의 뿌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종민 목사가 특별기도 인도했으며 김영모 목사가 축도했다. 예배후 조응규 의원이 감사인사를 했다. 조응규 의원은 “116년전 102명 이민선배들이 미지의 나라 땅에 하나님만 믿고 도전했다”며 “미국엔 세계 200여개 나라에서 온 수백의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다. 다른 민족과 문화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미국의 모든 인종 간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미주 한인의 날 맞아 후손들에게 모범적인 미국시민이 될 역량을 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필라교협 신년축하예배 및 하례회가 지난 6일 필라안디옥교회에서 열렸다.

“함께 더불어 삼시다”
필라교협 신년축하예배 및 하례회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철 목사) 신년축하예배 및 하례회가 지난 6일 오후 6시 필라 안디옥교회(호성기 목사)에서 열렸다. 김성철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안디옥교회 여전도회서 준비한 떡국으로 친교한 후 드린 예배는 김성철 목사(예승교회, 교협회장) 인도로 김영천 목사(한마음교회, 필라목사회 회장)

의 기도, 이광호 장로(CLC교회, 필라장로회 회장)의 성경봉독(야2:10), 필라안디옥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던 후 호성기 목사가 “함께 더불어 삼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호 목사는 “보잘 것 없는 시골 처녀 슬픔을 솔로몬 왕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못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택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어 자신이 변화되자”고 말했다. 이어진 통성기도는 박등배

목사(서머나교회, 신학분과위원장) 인도로 김대성 목사(하비스트교회)가 ‘필라 한인교민, 사회와 한인교회’를 위해, 김병일 목사(포도원교회)가 ‘조국교회와 북한’을 위해, 강승호 목사(증경회장, 순복음중앙교회)가 ‘미국, 해외 교민 선교사들, 세계 평화’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 오충환 장로(2부회장) 헌금기도 후 황준석 목사(큰민음제일교회, 증경회장)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하례회는 이대우 목사(대내분과위원장) 사회로 정미호 회장(필라평통)의 대통령 신년사 대독 후, 필라한인회 장병기 회장, 데이빗 오시의원, 서재필기념재단 최정수 회장, 이승만기념사업회 박상익 이사장 등 단체 소개가 있었다. 연이어 교협 직전회장장과 직전 부회장, 안디옥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한 후 고택원 목사(새한교회, 증경회장) 폐회 기도도 마쳤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에서 전공별 참석자들이 각테이블로 나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입학설명회가 8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최윤정 교수 사회로 시작된

입학설명회에서 임성진 총장은 “오늘날 사역현장은 어려움이 크다”며 “월드미션대학교가 사역현장에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려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성전에서 도움을 청하는 약은뱅이를 나타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처럼 월드미션대학교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자 한다”고 환영의 말씀을 전했다. 임성진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학교홍보영상 소개됐으며 각 전공별로 마련된 테이블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필라목사회가 주관한 5개 단체 연합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여 조국을 지켜 주소서!”
필라목사회 주관 5개 단체 연합기도회

필라델피아 한인지역 목사회(회장 김영천 목사)가 주관하고 원로목사회(회장 신정기 목사), 교회협의회(회장 김성철 목사), 장로회(회장 이광호 장로)와 남부누저지교협(회장 이만수 목사) 등 5개 단체가 모여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새한교회(고택원 목사)에서 신년 연합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목사와 제직 등 70여 명이 참석해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다. 1부 예배는 김영천 목사 인도로 이광호 장로의 대표기도, 한상경 목사(목사회 총무)가 은혜미야 1:1-11절을 봉독한 후, “주여 조국을 지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고택원 목사(증경회장)가 설교했다. 고택원 목사는 “오늘날처럼 혼란한 고국 상황에서 과거 애국 애족으로 선도했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에스더 같은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자”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제목에 따라 인도자와 마무리 기도자를 따로 세워 진행했다. △미국의 번영과 영적 부흥을 위해: 김영천 목사, 황준석 목사 △조국 안정과 영적 부흥을 위해: 이정철 목사, 전영현

목사 △남북통일과 북한 영적 부흥을 위해: 안창기 목사, 백형무 목사 △필라 영적 부흥과 각 기관과 동료 사회를 위해: 한상우 장로 △세계 선교와 외복을 위해: 김병일 목사 △모든 기관, 가정, 교회를 위해: 김성철 목사, 고인호 목사. 헌금기도는 이만수 목사의 헌금기도 후 신정기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임준환 목사(목사회 부회장)의 광고 및 이대우 목사(증경회장)의 만찬 기도가 있던 후 새한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굴 한통씩을 증정했으며 노부부배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날 식사는 김영천 목사가 제공했으며 오찬 후후 불링장으로 옮겨 친교를 나눴다. 김영천 회장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다. <기사제공: 필라목사회>



은혜한국어재단 및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은혜한국어재단 총회 및 이사회

은혜한국어재단(이사장 홍연숙 교수)은 2019년 총회 및 이사회를 9일 오전 11시 30분 용궁에서 열었다. 김정우 목사(재단총무) 사회로 열린 1부 총회는 이우호 목사가 개회기도

했으며 애국가 제창 후 홍연숙 이사장이 환영사를 했다. 홍연숙 이사장은 “은혜한국어재단이 1년간의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모였다”며 “을 만든 동기는 에네켄 후손을 도

와 한국어와 한국문화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멕시코에 한국어강좌를 열고 보니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한국어의 세계화에 중점 뒤 한국어를 좋아하는 멕시코인 중심으로 사역했다”고 말하고 “이번학기 에네켄 후손이 등록해서 감격했다. 대학교 강사진은 멕시코에서 한국말을 배운 세대이며 그들이 교사가 되서 한국어 강좌가 번성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이사장이 참석자 소개 있었으며 UABC대학 한국어강좌 경과보고 시간을 가졌다. 2부 이사회는 회계보고, 토의안건이 있었다. <박준호 기자>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식
한인목회자 양성위해 100만 달러 기금모금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총장 제프리 판 박사, 사신) 대학발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2일 오후 6시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일 정오에 JJ그랜드호텔에서 가졌다. 이종오 부총장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은 연합감리교회

에 속한 13대 신학교 중 하나로 135년 전통을 이어왔다”면서 “지금도 한인 학생 75명이 재학하고 있다. 발전위원회 기금 100만 달러를 모으면 목회자를 꿈꾸는 한인 석사과정 6명에게 3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AYC, SAT 과정 개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가 2019년 봄학기 대학 진학을 위한 SAT 과정을 개설한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 포함)이며, 대상은 고등학생 10명. 수업내용은 영어(READING), 작문(WRITING), 수학(MATH), 그리고 멘토링(MENTORING)이다. 기간은 2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수업료는 850달러(플러스 픽업시 50달러 추가).

▲문의: (718)279-1313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아이티 비전트립 희망자 모집

아이티 고아원 사역을 하는 핑핸드(대표 조항석 목사)가 2월 18일부터 22일(금)까지 4박5일간 갖는 비전트립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방문 장소는 아이티 고아원 10곳, 병원, 시티슬레방문내용은 식량 및 의약품 공급, 학용품 공급, 건축현장 방문 등이며 참가비는 항공권+400달러(항공권 구입은 단체로 하며, 취소하면 모든 비용을 참가자 부담). 신청마감 1월 23일(수)까지 참가신청비 200달러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문의: chohenry02@gmail.com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14일 저녁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부흥되기 원하면 성결하라”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지난 14일 저녁 7시 대동연회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신년사에서 “성결한 삶을 표어로 시작한 45회 교협 산하 모든 가정이 성결함으로 교회와 유

욕사회가 성결해지기를 살기 바란다”며 “부흥되기 원하면 성결하라”고 외쳤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양민석 목사 인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 찬양 뉴욕권사합창단 프라미스어린이찬양단, 설교 허연행 목사, 특별합심기도 미바울 목

사, 봉헌기도 김주열 장로, 헌금특송 정지형 선생, 축도 김영식 목사 순서로 진행했다.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는 “성결이 능력입니다”(수 3:5-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요단강 물이 차오르는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었다”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신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신앙이 초보단계 를 지나 성숙으로 갈수록 성결이 중요시 된다”며 “45회 교협의 중심이 ‘성결한 삶’인만큼 개인, 가정, 목회, 사업에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올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하례식은 총무 이은수

목사 사회로 박태규 목사(목사회 회장) 개회기도 후 미, 한 국가제장, 신년사 정순원 목사, 내빈축사(피터구 뉴욕시의원, 송병기 증경회장, 사무엘 바셀 나사렛교단 감독, 박효성 뉴욕총영사, 강현석 장로), 시상 목회자상(김전 목사) 평신도상(김주열 장로), 축가 이광선 집사 뉴욕장로성가단, 후원금 전달식 순서로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했다.

3부 만찬은 이용보 목사의 만찬기도 후 진행됐으며 윤태석과 나눔밴드의 축주, 경품추첨 등이 있었고 서기 이창중 목사 광고 후 김재권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평신도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교협수첩과 이사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이 배부됐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제직수련회에서 강사 김영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믿음의 세계” ..찬송 부르며 은혜 받는다

퀸즈장로교회 제직수련회, 강사 김영길 목사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제직수련회가 “믿음의 세계”라는 주제로 1월 11일 저녁부터 3일간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강사는 김영길 목사(LA감사한인교회 원로).

김영길 목사는 수련회 내내 찬송에 대해 강조했다. 첫날 저녁집회에서 김영길 목사는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을 좀 부를 것이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좋은 찬송을 택해 7번을 계속 불러보라. 우리가 대부분 찬송을 부르면서 집중하지 않기에 뭘 불렀는지 모른다. 하도 수십년동안 찬송을 불렀기에 가사를 보지 않고 다 부르기는 하지만 가사 하나 남는 것 없다. 그런데 똑같은 찬송을 두 번 부르면 단어 한두개가 눈앞에 떠오른다. 세 번째 부르면 소절이, 네 번째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섯 번째 부르면 손이 올라간다. 여섯 번째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 일곱 번째 부르면 더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내 주여 뜻대로” 찬송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날 542장 “구주예수 의지함”을 1절부터 4절까지 3번 연속으로 부르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김 목사는 첫날 “믿음의 본질”(히11:6) 제목 설교에서 “믿음의 본질 3가지는 △삼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며 “2019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누가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엔 “믿음의 방향”(삼상14:6-15), 셋째 날엔 “믿음의 크기”(창39:1-3)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일원 KAPC 및 각 교단 노회 신년하례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들이 2019년을 맞아 일제히 신년감사 및 하례예배를 드리고 한해를 시작했다. 신년하례예배는 총회장(김재열 목사)이 소속된 뉴욕남노회(노회장 권영국 목사)가 1월 3일(목) 오후 5시 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가장 먼저 드렸다. 이어 뉴욕동노회(노회장 이상만 목사)가 7일 오전 10시 노회장 사무교회인 뉴저지 베이직교회에서 드렸다. 뉴욕노회(노회장 문종은 목사)는 7일 오전 11시 뉴욕주은혜장로교회(임병순 목사)에서 드렸다. 뉴욕서노회(노회장 이종열 목사)는 14일 저녁 5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든노회(노회장 목사)는 28일(월) 저녁 뉴저지 성도교회(허상회 목사)에서 드린다.

한편 각 교단들도 일제히 신년예배 및 하례회를 가졌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노회장 박명준 목사)는 13일 오후 5시 뉴욕신일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설교는 심재철 목사(말씀장로교회)가 전했다.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는 매년 열고 있는 신년 금식성회를 1일과 2일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자”라는 주제로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서 열었다.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는 1월 4일 오전 11시 천구교회(빈상석 목사)에서 열었다. RCA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협은 연합으로 1월 7일 오전 뉴욕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에서 드렸다.

뉴욕남노회

예배는 사회 권영국 목사, 기도 이재덕 목사, 성경봉독 전현수 목사, 설교 김재열 목사, 축도 조성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나눈 후 신년 옷놀이 등 친교가 진행됐다. 특히 모든 순서 후에는 올해부터 ‘신년목사장로기도회’에서 ‘학술대회 및 기도회’로 바꾼 사업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다.

김재열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며 먼저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교회와 가정과 노회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했다.

김재열 목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기득권들을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들 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며 “전기가 없던 시절 화려한 전등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지만 아침에 찬란히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찬란하고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빛을 체험한 사람에게 세상살이는 소꿉장난으로, 세상의 삶은 잠시 놀다 엄마가 부르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열 총회장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같이, 올 한 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 나가는 2019년이 되게 하라”고 기도했다.

뉴욕동노회

예배는 노회장 이상만 목사의 인도로 기도 장기수 목사, 설교 이상만 목사(미국을 위해), 황상하 목사(조국을 위해), 이길호 목사(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위해)의 인도로 진행됐다. 또, 병원에 입원한 회원 목사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기 정준성 목사의 광고 후 예배를 마치고, 신년 감사 및 덕담이 진행됐다.

회원들은 식당에서 베이직교회에서 제공한 오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만 목사는 “어디로 가든 지 행통”(수1:7-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남은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그때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도자 없는 마치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척박한 영적인 현실 속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축복이 노회산하 모든 교회와 가정위에 있기를 축복한다. 이를 위해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피 흘리기까지 지키며 행하는 귀한 회원들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욕노회

1부 예배는 홍준식 목사 인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 성경봉독 방정훈 목사, 말씀 문종은 목사, 축도 이영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문종은 목사는 시편



뉴욕남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동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중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20:1-9편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문 목사는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라며 “다윗은 이 기도문에서 첫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고백,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원, 셋째, 기도 속에서 승리를 확신

하고 있다고 말하고 2019년 영적 전쟁의 시간을 앞에 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2면으로 계속)

뉴욕교협증경회장단 새 회장 송병기 목사

9일 정기총회, “교계와 교협 발전에 헌신할 터”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1월 9일 오전 11시 베이사이드 소재 거성식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송병기 목사를 선임했다.

회의는 회장 한재홍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 목사는 지난 총회이후 한 번도 모임을 가지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총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거를 통해 부회장 송병기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송 목사보다 앞선 회기지만 기회를 놓친 양희철 목사가 부회장이 됐다. 또 회장 송병기 목사는 이재덕 목사를 총무로 지명했다. 이후 회장선출은 회기에 따라 총무-부회장-회장의 순서를 밝기로 했다.

송병기 목사는 “증경회장단이 뉴욕교협 집행부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역할”임을 확인하고 “회장을 도와 교계와 교협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짐했다.

이어 송 목사는 회칙 수정을 주도해 회장 단임과 회장은 회기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등

필요한 회칙을 수정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승희 목사(총무) 사회로, 기도 김원기 목사, 설교 정순원 목사(교협 회장), 축도 신현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마20:20-2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며 증경회장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교계의 나침반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증경회장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영안교회 “한사람” 찬양콘서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영안교회 “한사람” 찬양콘서트

CSO-Streamside Ministry, 유스연합수련회

뉴욕영안교회(김경열 목사)가 1월 13일 오후 5시 “한사람”이라는 주제로 찬양, 기도, 담임 김경열 목사는 “이번 집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한 번만 도와주면 힘을 얻고 별책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을 도와 징검다리 혹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는 신복교회 담임이며 한국 피어선총회신학교 교학

처장 이상환 목사도, 학교 홍보차원 차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 피어선총회신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뉴욕영안교회는 2017년도 가수 허영란을 초청해 “한사람” 집회를 열고 가난한 찬양사역자의 음반제작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인도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 선교사를 돕게 된다. 이를 위해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영안교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식에서 취임하는 김관진 목사(사진 왼쪽)가 이임하는 샘신 목사(사진 오른쪽)로부터 목사회 깃발을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본이 되는 목사회, 변화되는 목사회로 남가주한인목사회 제 52대 회장단 이취임식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 제 52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13일 오후 4시 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회장 김관진 목사는 "목사회 설립당시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을 상상해본다"며 "목사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이민목회에 유익이 되는 목사회,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회, 화합과 상생을 통해 본이 되는 목사회, 그리고 목사의 위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변화되는 목사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광 목사(총무)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샘신 목사(직전회장)가 이임사, 김관진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했다.

이어 목사회기 이상, 취임패 수여,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축사는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회장), 김영균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영상)가 했다.

홍영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격려사, 전용대 목

사(아워드림선교회 대표)가 특송했다.

한편 이취임식 직전에 열린 1부 예배는 박세현 목사(부회장) 인도로 이상권 목사(분회 부회장)찬양인도,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가 기도했으며 최명상 목사(분회 부회장)가 성경봉독,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휘 이재경 목사)이 특송했다.

이어 한기형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자'(행3: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학량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가 축도했다. 다음은 제52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 명단.

△회장: 김관진 △부회장: 박세현, 이상권, 최명상, 최경일, 심진구, 송영일, 신인성, 김정환, 양경선, 이정현, 윤건상, 오세원, 김헬렌, 조미나, 주재임 △총무: 강태광 △부총무: 최성남 △서기: 이상권 △부서기: 고동욱 △회계: 조미나 △부회계: 정충일 △감사: 엄규서, 유장영(이상 목사)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열린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선교와 사역위한 웹사이트 운영강의 그레이스미션대, 강사 구자혁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강의(Website for Mission & Ministry)를 8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화, 수,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30분까지 열었다.

9일 '워드 프레스 설치'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구자혁 교수는 "워드프레스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면 설치 및 디자인하는데 용이해진다"며 "교회에서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그

림이나 사진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토샵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보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사용여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whois.com에서 도메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기독교인회 신년예배 및 하례식 미 대통령봉사상 금상 6명 수여식

기독교인회(회장 김희창 목사) 신년하례식이 12일 영생장로교회(김해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하례식 예배는 미국대통령봉사상 금상 시상식과 한미 동맹강화 촉구 메시지 발표 행사도 함께 가졌다.

1부 신년감사예배는 이경호 남가주교협 기획총무의 사회로 최정학 부회장의 기도, 뉴스타부동산 로즈김 명예부사장의 성경봉독, 지도목사인 김재성 목사의 설교('다윗왕의 지도력'), 분회 임원들의 특송과 오네시모국제선교회장 박상구 목사의 봉헌기도로 진행됐다.

2부는 김희창 회장의 '신년 2019 한미동맹 강화 촉구 메시지' 발표에 이어 3부 미국대통령봉사상 금상 시상식에서는 미국대통령자문위원 척립

한미동맹협의회 립적 총재가 대통령들의 한미동맹강화 활동과 우익좌익의 구분에 대한 역사적 지닌 사실들을 발표했고 시상식 축하를 전달했다.

금번 금상에는 회장 김희창 목사, 부회장 최정학 장로, 차기학 목사, 총무 백소피아 전도사, 재무 오재식 장로, 반주정은순 장로 등이 수상했다.

전년 회기년도에는 김희창 회장 등 4명이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받았다.

(기사제공: 기독교인회)



기독교인회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목회자 자녀 3명에 장학금 전달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식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신기 목사)는 1월 13일 오후 5시 파사데나에 위치한 로고스교회(신동수 목사)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1부 예배에서는 안신기 목사 인도로 김중호 LA지방회장의 기도와 총회장 최경환 목사의 '여호와와 명령대로'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으며, 김성식 목사의 인도로 총회와 지방회, 조국과 교회, 교역자회 등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신년 교례회에는 3개 지방에 속한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져 Joyce Kim, Davis Kim, Yeayoung Vac 등이 장학금을 수여받았고 송증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의 영상 인사와 부에나팍 시의원 박영선 의원의 감사의 신년인사, 이정근 목사의 덕담, 이경호 목사의 특별 찬양의 시간들을 가졌으며, 각 지방회와 기관들이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만찬의 시간에는 신원철 목사의 감사기도 후 로고스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과 선물교환 행운권 추첨의 시간들을 통해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본회는 매 연초에 3개 지방회 교역자 가족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며 금년에는 170여명이 모였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남가주교역자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소망소사이어티 LA사무소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블커팅을 하고있다

'작은 섬김이 큰 축복으로' 소망소사이어티 LA 사무실 개소식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LA사무실 개소식이 10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유분자 이사장은 "지난 11년간 기도하던 LA지부를 여는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며 "소망소사이어티가 2017년 10주년을 맞이하고 제2의 1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샌디에고 지부 개설에 이어 올해 LA 지부를 개설했다. 주류사회의 6기관과 MOU를 맺었다. 현재 20명의 봉사자들이 있는데 해마다 봉사자 교육을 통해 소망의 꿈을 함께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개소식은 소망홍보영상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이 함께 소망의노래를 합창했다.

이어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가 '작은 섬김, 큰 축

복'(행28:1-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근 목사는 "소망소사이어티가 웰다잉, 웰에이징 웰빙 등 기독교 가치관을 추구한다"며 "작은 섬김을 통해 큰역사 이룬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작지만 진실 된 것을 통해 큰일을 이루신다. 작게 시작된 소망이 오늘날 큰 사역이 됐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 전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치매환자들을 위한 소망케어교실 동영상 소개됐으며 구태훈 LA 영사, 칼토카타 카이론 토달대표, 염인숙 기독교상담소장이 축사하고 테이블커팅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 창립 20주년 임직예배에서 성도들이 임직자들에 대한 서약을 하고있다

성령 충만하며 충성하라... 주님의영광교회 설립20주년 기념 임직예배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설립20주년 기념 임직예배가 13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신승훈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인찬 목사가 대 표기도 했으며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임 및 국제총회 증경총회장)가 '충성하라'(잠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서 목사는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며 "충성하려면 순종해야 하며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장로장립, 안수집사 임명, 권사 임명 및 취임시간으로 이어졌다.

장로장립, 안수집사 임명, 권사 임명 및 취임시간은 임직자 서약, 성도서약, 안수기도 및 임직패 증정, 그리고 공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중욱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가 축사 및 권면을 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신승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2019 신년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박득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 충현선교교회 2019 신년 부흥회, 강사 박득훈 목사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2019 신년 부흥회를 10일부터 13일까지 박득훈 목사(교회실현연대 공동대표, 전 새삼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었다.

13일 주일오전 11시 30분 열린 집회에서 박득훈 목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갈6:11-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음은 익숙한 단어가 아니다. 참된 믿음을 이 땅에 펼칠 생각하면 떠나가는 사람을 봐야할 아픔도 겪어야 한다"며 "바른 신앙은 십자가만을 전하는 신앙이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고 복되다 축하받고 세상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은 거룩하지만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를 실현해보기를 원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바울시대 예수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할례였는데 오늘날은 목회세습,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도를 방자한 교인 불리기 등"이라 지적하며 "참된 믿음을 이 땅에 펼칠 생각하면 떠나가는 사람을 봐야할 아픔도 겪어야 한다"며 "바른 신앙은 십자가만을 전하는 신앙이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고 복되다 축하받고 세상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현우 신 파운데이션 주최 '클래식컬이브닝, 마스터웍스' 연주회에서 연주자들이 연주가 마친후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현우신파운데이션 '클래식컬이브닝, 마스터웍스' 연주회

젊은 음악가들이 문체 폴번스쿨과 USC 음악학도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창립음악회를 열었다.

맨해튼음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고 USC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현우(40)씨를 대표로 LA마스터오케스트라 오정근 지휘자가 공동설립자로 합세한 현우신파운데이션(Hyunwoo Shin Foundation, 대표 신현우)은 13일 오후 6시 더 소라야(The Soraya·구 벨리퍼포밍아트센터)에서 '클래식컬 이브닝, 마스터웍스'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회는 소렐 콘체르토,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엘가의 모음곡,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아리아 등 친숙하고 수준 있는 클래식 음악이 선사됐다.

이날 연주회는 신현우 대표

가 피아노 솔로 무대로 LAKMA(음악감독 윤임상)와 베토벤 판타지 협연을 하고 소프라노 신선미씨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주역 비올레타를 노래했다.

또, 테너 오우영, 황호진, 장상근, 메조 소프라노 글로리아 파리로, 소프라노 스테파니 존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그리고 윤임상 지휘자가 이끄는 라카마(LAKMA)와 LA마스터오케스트라가 찬조 출연했다.

신현우 대표는 "연주자들은 매일 경쟁을 하며 외롭게 활동하고 있다"며 "연주회를 할 때 마다 관중들의 참여와 박수, 그리고 연주가 마친 후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 앞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과 함께 연주회를 자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북한선교 '이단·사이비' 경계령

조직적 침투 움직임... 남북 화해 틈타 '발톱' 드러내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이단 및 사이비종교 집단이 북한에 눈독을 들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이들의 침투를 경계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목한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지난달 23일 청주에서 열린 모 지파 수료식에서 위장 평화행사인 '만국회의'의 북한 개최설을 언급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88)씨는 수료식에서 "북한 당국이 15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대관을 허락했다"며 "통일부만 허락해 준다면 신천지 성도 20만명과 함께 9월 평양에서(만국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어 "신천지가 길을 뚫으면 그 자체로 통일 아니냐"고 덧붙혔다. 신천지가 북한에서 포교할 의지가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

계자는 지난 11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면 불법"이라며 "북한이 종교 관련 메시지를 이제 막 내보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의 사이비종교집단 중 하나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도 북한을 노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소식통은 "전능신교가 조선족 신도들을 중심으로 북한 내 성도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확한 수치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인식이나 대응 수준은 낮다. 현재 한국교회는 북녘에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까지는 형성했지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은 미진한 상황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교계 인사는 "통일 선교가 10년 만에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단 포교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는 생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북한에 침투한 통일교의 행보를 거론하면서 이를 통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이단과 사이비종교 집단들도 통일교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기연 아세아연합신대 교수는 "통일교는 20년 전 평양에 호텔을 짓고 자동차회사를 세워 북한 정권의 마음을 샀다"며 "이번에도 이단·사이비들이 북한 지도부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경제적 지원 등을 앞세워 접근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향후 화해 분위기가 자리를 잡으면 한반도와 중국이 본격 연결되는 만큼 세계 교회와 공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한반도 밖으로는 신천지가, 안으로는 전능신교가 본격적으로 세를 불릴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을 넘어 동북 3성 교회들과 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탁 교수는 "한국교회는 중국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견한 국가들과 공의회를 만들어 협력한 전례가 있다"며 "동북아선교협의회 등을 마련해 이단 문제에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에 포함

"국가인권위, 페미니즘·인권으로 포장"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동대에서 징계 받은 다자성애자(多者性愛者)를 '성소수자'에 포함시켰다. 국가인권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동대 총장에게 무기징역 및 특별지도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권,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은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다자성애)과 한동대가 헌법상 두텁게 보장받는 사학의 교육권(종교교육의 자유, 학교자율권)이 충돌한 사건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다자성애 학생의 주장만 받아들여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된다면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 공공선, 공익이라는 원칙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다자성애는 이런 원칙을 충족

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다자성애는 집단 난교나 중혼(重婚), 일부다처(一夫多妻), 다부다처(多夫多妻)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민·형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한동대는 기독교 지도자 육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성애자를 통제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성매매 난교 낙태 합법화 주장은 일반 대학에서 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이를 표현·집회의 자유에 포함시키고 인권, 권리인양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권리를 무시한 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치켜세웠다"며 "국가 기관이 사립 대학의 설립 정신을 무시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와 대학의 자율성,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의 교수와 학부모들도 반대 운동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앞서 7일 다자성애 매춘 낙태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고 인권에 포함시킨 "사건은 혐의와 관계없으며, 신천지는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10일 인천 남동구 성산교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던 구모씨가 2017년 12월 전남 화순 펜션에서 가족들과 우발적 마찰로 의식을 잃고 11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신천지는 사건을 왜곡해 '돈벌이 목적으로 강제개종교육을 했다' '이단 상담이 남치 감금 강요를 일삼는 강제개종이다'라는 거짓말을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인간을 상정해 본부에서 결정했다"면서 "(다자성애자의 성소수자 포함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사랑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독교인들을 동참시킬 방침이다.

연맹은 박위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전 총회장, 김선규 예장 합동 전 총회장을 상임의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임원 1000여명을 발표했다. 설교를 한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옳지 못한 일을 보고 들었을 때 기도와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는 필요하며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공동대회장 배진기 목사의 사회로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 문성모 목사, "한국교회연합과 일치" 이효상 목사, "대한민국 경제와 직장복음화" 박흥일 장로, "성령아프리카 2019" 정운교 선교사의 제목기도 후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두가지 부흥"이란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공동대회장 정인찬 목사, 주남석 목사, 이은대 목사, 강현식 목사의 신년사가 있었다.

이사장 안준배 목사가 48명의 건립위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2019년 3월 22일 준공 개관식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독교성령센터 건립보고를 했다.

문체부-한국학중앙연구소 '한국의 종교현황' 보고서 발표

수치로 본 한국교회...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복음

한국교회를 포함한 종교계의 노력을 수치화한 자료가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2018 한국의 종교 현황'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보고서다.

기독교 관련 단체는 전체 종교 단체 7만2000여개 중 5만5000여개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불교가 1만3000여개, 천주교가 2000여개로 뒤를 이었다.

인종립학교는 전국에 총 145개로 집계됐다. 기독교계가 109개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가 15개 불교가 10개로 뒤를 이었다. 일반 대학도 기독교계가 61개, 천주교계가

신앙생활 기간 늘고 공식 예배 참석

보고서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종교는 국가와 함께 사회를 돌봐 왔다고 짚었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 사회복지 영역을 모두 떠맡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종교계에 공공부분의 많은 영역을 맡겨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교육과 복지 분야에 교회 등 종교기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종교 관련 고등교육 기관

14개 불교계 5개로 집계됐다. 이외 종교 재단이 세운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안학교도 850여개에 달했다. 기독교계열이 631개로 가장 많았다.

복지 사업에서도 한국교회의 노력이 입증됐다. 호스피스 기관 및 단체 161개 중 94개가 기독교계로 밝혀졌다. 천주교계 역시 38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복지사

업단체 역시 기독교계가 259개로 가장 많았다.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는 선교사 파송에도 한국교회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국가에 많은 인원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기독교 선교사는 170여개국에 2만7000여명으로 드러났다. 불교가 30개국 590여명을 보냈고 천주교 역시 62개국에 170여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보고서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가 여전히 사회와 국가에 필요하다고 분석했

희수는 줄어

다. 보고서는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와 국가가 사회 전반의 현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교가 교육과 복지 등 공적영역에서 국가와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신도 사망사건, 강제개종은 거짓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가족교동 외면 사건약용 신천지 규탄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에 빼졌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구모씨 사건에 대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사건은 혐의와 관계없으며, 신천지는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10일 인천 남동구 성산교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던 구모씨가 2017년 12월 전남 화순 펜션에서 가족들과 우발적 마찰로 의식을 잃고 11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신천지는 사건을 왜곡해 '돈벌이 목적으로 강제개종교육을 했다' '이단 상담이 남치 감금 강요를 일삼는 강제개종이다'라는 거짓말을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고 당시 구모 씨의 가족들은 광주이단상담소와 협회에 상담요청을 하지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사고의 배후로 지목한 임웅기 광주이단상담소장과 상담소 간사는 검찰 출석을 통보받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다. 만약 신천지의 주장대로 돈벌이, 강제개종이 있었다면 물증이 나왔을 것이며 검경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더이상 유가족의 고통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웅기 광주상담소장은 "신천지는 지난해 유가족과 상의도 없이 고인의 실명과 얼굴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단지 배포, 전국집회 개최, 청와대

국민청원, 광고계제 등으로 강제개종금지법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처럼 신천지는 자기 종교집단만을 위한 거짓 홍보활동으로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도 "사망사건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신천지가 아니라 유가족"이라면서 "신천지가 정상적인 종교집단이라면 이번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석고대죄하는 게 순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더이상 신천지는 구모씨 사고와 강제개종 금지법을 앞세워 신천지 신도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하며, 신도들은 교주의 거짓 주장과 사기 교리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천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임용 거부 재계약 탈락...이사회 갑질(?)"

서울기독교대 교수회의 입장 발표

서울기독교대(이강평 총장) 교수회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의 갑질 및 부당 재임용, 호봉제한 및 재계약 탈락에 대한 서울기독교대 학교 교수회의 입장'을 내고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절차대로 진행된 내용을 무시하고 명확한 재임용 거부와 재계약 탈락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심의 대상자 5명 전원 재임용 거부 및 재계약 탈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 및 당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재임용 및 재계약 문제를 학칙과 규정에 근거 없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기독교대는 지난달 6일 교수 5명에 대해 재계약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학교법인 환원학원(신조광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부결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수들은 다음 달 28일 임기가 만료된다. 학교는 이들 교수들의 업적 평가 점수와 연구 실적, 대학 발전 공헌 평가서 등을 검토하고 해당 부분에 결격 사유가 없었기에 이사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학교 측에 따르면 승진 및 재계약, 재임용 대상자들은 모두 5명이었다. 전모(신학과) 박모(신학과) 이모(교양학과) 이모(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승진 및 재계약, 강모(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임용을 앞두고 있었다.



2019성령세계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019 성령세계 신년기도회

세계성령중앙협 31회기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선출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성령세계2020(대회장 소강석 목사)

은 2019년 1월 14일 앰버서더 호텔 오키드룸에서 2019성령세계 신년기도회를 가졌다.

정균양 목사, 김창곤 목사, 장현일 목사, 남준희 목사가 순서를 맡았고 아버지학교 관계하는 남아공화국 교도소장 등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서 실행위원 28명 출석하에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31회 정기총회가 개최돼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를 3회기 연임하는 31회기 실행위원을 선임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성령아프리카2019를 케냐·탄자니아·스와질랜드·남아공화국에서 '성령으로 아프리카를' 주제로 개최하기로 하고 현지준비위원장 정운교 선교사, 김중양 선교사를 선임했다. (기사제공:세계성령중앙협의회)

<10면에서 계속>

이어 이종열 목사의 기도후 2부 식사 및 교제가 진행됐으며, 이윤석 목사의 진행으로 3부 율놀이에서 푸짐한 상품 및 선물이 전달됐다. 이어 이규분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서노회

예배는 오영상 목사의 찬양 인도 후 임동열 목사 사회로 시작했다. 기도는 유기천 목사, 설교 이종열 목사, 축도 강기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열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살전4:1-12)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회자가 가정의 부부관계를 강조했다.

이 목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우리의 존재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란 진리가 뒤집어지는 순간 그 자리가 바뀌어진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첫째가 거룩이며 둘째 사랑, 셋째 충성"이라고 말하고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타락이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목회도 잘 된다"고 말하고 사모와 일주일에 1회 오찬데이트, 6개월에 한번 여행, 하루 3번 안아주기 등을 조언했다.

2부는 사모회가 준비한 저녁식사 후 임일송 목사 사회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선교의 창 (116)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여호와의 등불(燈火)

2019년, 황금 돼지띠라 이름 하는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년 365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심령에 여호와의 등불을 켜야 한다. 옛날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등불을 들고 칠 흙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등불 없이 걸을 때에는 돌에 부딪치거나 혹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매일매일 더듬어 나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약의 성소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것은 신약의 성전을 예표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다(고전 6:19).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만일 그 등불이 켜지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기 쉽다. 선교는 커녕 자기 자신도 감당 할 수가 없다.

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시대대를 밝히는 선지적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우리 가운데 참 빛(요1:9)으로 거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기도와 말씀과 신앙 고백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주(主)로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롬 12:1)로 내어 드릴 때 가능하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를 통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가치를 들게 하셨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세상에 변혁을 주도한 여호와의 등불이 되었다. 구한말(舊韓末)까지 우리 한민족은 온갖 미신과 어두움의 악습에 붙잡혀 살아왔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Underwood)와 아펜셀러(Appenzeller) 선교사 부

부가 들어왔다. 그들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 한민족에게 생명의 불을 점화하였다. 우리 민족사 단기4218년 만에 일어 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다.

2. 여호와의 등불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었다. 사무엘(Samuel)이 살았던 BC 11세기경에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기는 과도기였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은 암울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삼상3:1). 제사장인 엘리는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며 정신도 혼미해져갔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등불로서 사무엘을 준비시켰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 나이가 12살 때라고 한다.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 거룩한 직임을 다 했다.

역사가들은 중세 1,000여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한

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를 통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가치를 들게 하셨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세상에 변혁을 주도한 여호와의 등불이 되었다. 구한말(舊韓末)까지 우리 한민족은 온갖 미신과 어두움의 악습에 붙잡혀 살아왔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Underwood)와 아펜셀러(Appenzeller) 선교사 부

3. 여호와의 등불을 비취야 할 곳

유교의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보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나온다. 선교사가 맨 먼저 여호와의 등불을 켜 비취야 할 곳이 어디인가? 첫째 자기 자신이다.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지 않은 채 사역에 임하면 팍팍할 뿐이다. 자기 힘으로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무슨 사역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는 가정이다. 아무리 밖에서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잘못되면 기쁨이 없다. 오래 버티기 힘들다. 사탄은 선교사들의 약점을 잘 안다. 몸과 마음이 늘 밖에 가있기에 가정을 공격한다. 한 국교회 문화 가운데는 가족까지 희생해야 위대한 사역자로 평가받는 풍토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가정에 여호와와 더불어 켜지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일터이다. 선교사가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다. 치열한 영적싸움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은 끔찍한 밤과 같다. 선교는 못 심령들에게 여호와와 등불이 켜지게 하며 나아가 저들이 예수의 제자 도를 견도록 돕는 일이다.

넷째, 사회이다. 바로 선교사가 거하는 지역의 족속과 국가이다. 이는 사회구원을 말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회구원도 등한시 할 수 없다. 어떻게 하

면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빛이 그 곳에 흘러넘치게 할 것인가? 이는 사역자의 몫이다.

맺음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이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그 빛은 나의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찬란한 내일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주권적 통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여호와의 등불을 켜야 한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이 환해진다. 그늘진 얼굴들이 밝아진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무엘처럼 여호와와 등불이 되어 각 공동체와 족속과 열방을 비출 인물들을 찾고 계신다.

jsong007@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후두염

급성후두염, 감기 후에 올수 있어

감기는 약을 먹으면 치료하는데 일주일도 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7일이 걸린다는 말을 흔히 한다. 감기는 그 자체를 치료할 특별한 치료약이 없고 대부분 저절로 낫기 때문에 증상치료를 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감기 후에 올 수 있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S씨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전화 회사 교환원으로 일하고 있다. 3주전에 심한 감기를 앓고 나서 목소리가 쉬기 시작하더니 목이 잠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온몸이 쭈시고 두통이 있었는데 증상이 진행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2주 전부터는 기침과 가래는 없어졌지만 목이 쉬어서 직장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다. 책임감이 강한 S씨는 목이 쉬어도 계속 회사에 나갔다.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아왔다. S씨는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고 수술은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한 것 밖에 없었다. 평소 담배를 하루 반갑 정도 피웠는데 감기에 걸리고 나서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평소 직장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목이 쉬는 상태였다. S씨를 검진했다. 인두가 부어 있는 것 외에 폐음이나 심음은 모두 정상이었다. 후두경 상에서는 후두가 조금 부어 있는 것을 빼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S씨는 감기 후에 오는 급성 후두염으로 진단을 받고 증상치료를 받고 1주일 후 목소리를 완전히 되찾았다.

급성후두염(acute viral laryngitis)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감기 후에 올 수 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목을 많이 사용한 후에 점막의 출혈로 인해서 성대가 부어 생기도 한다. 감기 후에 오는 후두염은 때로는 세균에 의해 생기도 하지만 항생제 치료도 별 도움을 못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돌란 가래가 나오고 목이 아픈 세균성 인두염 증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단 목을 쉬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며 습기를 틀어주는 등의 증상 치료를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만성 후두염은 만성적인 자극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위산 역류에 의해서 성대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부비강염에 의해서 콧물이 만성적으로 후두를 자극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흡연이나 만성 알코올 섭취, 흡입 천식약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성 후두염 치료는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보다 정밀한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영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성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해스 걸음),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새벽: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기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성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27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l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Fwww.tor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선교사역지의 필요를 위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남미아태아 대학원” (2)



강성철 선교사
(GMS브라질 남부지부장)

2. 같은 신앙고백위에 세워진 남미 아태아 대학원

남미 ATEA대학원은 ATEA 인준 매뉴얼(Accreditation Manual of ATEA)을 존중하며 다음의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라.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그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4. 성령의 역사는 인성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5.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은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이다.

6.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성령으로 하나되어 함께한 지체를 이루는 구원받은 모든 구성원이다.

7. 육체 사망 이후의 부활은 신자는 주와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나 불신자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3. 남미아태아 대학원의 특징

남미아태아 대학원은 바쁘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자경비를 들여 브라질을 방문하여 명강의를 해 줌으로 교포목회자, 한인선교사, 평신도선교지도자, 브라질 현지인 목회자 및 선교사, 신학생, 인도도 지도자, 파과이 선교사들에게까지 공개강좌로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립학술강좌에 함께하지 못했던 김의원 총장부부가 2016년 11월 2-12일 제2차 학술대회 주강사로 섬겼다. 11월 2-6일 IDPB(Rua 2de dezembro 584 Tuua Mirim Coari)에서 “Conferencia de pastores e Obreiros de Coari”를 실시했는데 주제는 언약신학(Teologia do Pacto)이었다. 김영옥 박사는 가정세미나를, 강성철 선교사는 “영성과 대인관계”를 강의하였다.

11월 10-11일은 신일교회(이광렬

목사)에서 한인선교사, 목회자, 평신도지도자 대상으로 김의원 총장이 집중강의를 하였고 11월 12일은 GMS 신학대학에서 현지인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대상으로 포어강좌를 하였으며 전액 무료강좌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의 운영에 남다른 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교포교회들이 컨소시엄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고 행정 및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해주고 현지인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주고 교파를 초월한 참여와 양질의 교육과 참여를 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수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참여도가 높으며 지원자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4. ALLS와 지속적인 관계 속에 독립적인 운영

필리핀, 그리스, 한국백석대학 총회에 이어지는 아태아 및 아태아대학원의 모임에 계속 참석.

2017년 2월 8-11일 호주 시드니 14회 총회 및 아태아 운영위원회에 코디네이터 지덕진박사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2018년 1월29일-2월4일 중국 쿤밍 ALLS총회 및 학술대회 지덕진 박사와 함께 참석하였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은 ATEA 인준 매뉴얼을 지키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되어지는 과정에 있기에 아태아 이름으로 정식학위는 주지 않고 있다. 브라질GMS신학대학은 AETAL(Associacao Evangelica de Educacao Teologica na America Latina)에 가입한 학교이기 때문에 AETAL이름으로 학위를 주고 있다. 강사도 주로 아태아 인준 AISS패널티와 인준단체 선임연구원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아태아와 상관없는 교수들도 초빙하고 있다.

kangsungchuel@gmail.com

새플린 임상목회 (24)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와 종류(3)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1.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지난 칼럼(1) 참조

2. 대표적인 정신 질환의 종류: 1)불안증(Anxiety Disorders): 지난 칼럼(1) 참조 2)우울증(Depression): 지난 칼럼(2) 참조

3)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양극성 장애는 환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감정의 굴곡을 유발합니다. 매사에 흥분될 정도로 극도의 에너지와 최상의 기분을 느끼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서 극도의 우울증과 애도, 절망감에 휩싸이는 다운사이드 사이클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상의 하이와 로우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일명 조울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증(manic episode) 상태에서는 말도 빠르고, 수면이나 휴식도 거의 취하지 않으며, 고동이나 리스크가 높은 극단적인 고위험도의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이나 심지어 사상자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면, 우울증(depressive episode) 상태에서는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쉽게 낙담하고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양극성장애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중독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단순 우울증 환자보다 조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치료와 돌봄이 더 필요한 정신질환입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십대 청소년이 이 질환으로 인해 또래의 청소년들과 고속도로에서 카레이스 치킨게임을 매일 밤마다 즐기다가 경주계엄

에서 지자 권총으로 자살한 경우도 있어서 병을 숨기고 치료를 받지했던 부모가 애도해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4)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은 보통 20대부터 그 증세가 시작되는 지속적 중증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로 하여금 정신착란증(현실에 대한 수용과 이해 결핍 및 정상적 대화기능장애)에 빠지게 하며, 망상(delusions)이나 환시와 환청(hallucinations)을 겪게 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정신질환환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일시적인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장기간 혹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정신질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정신과 병동의 경우도 동일한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조금 호전되어 퇴원했다가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다시 입원해 들어오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나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보호자와 친구들이 있는 경우, 완전한 치유 없이도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같은 신앙공동체가 역기능 가정이나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자극하는 가족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치유까지 감당해줄 때,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환자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육신과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었지만,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이 채워지면서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함께 교회와 가족이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하겠습니까.

tdspark@gmail.com

니카라과 제 1회 어머니기도회

글로벌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 산하 니카라과어머니기도회(인도 김연희 선교사) 제 1차 모임이 1월 14일 오전 10시 이동홍 선교사 선교스테이션에서 여성교사들과 목회자 사모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김연희 선교사의 사회로 Karen Tinoco 사모의 찬양 인도, Maria Zamora 사모의 기도, 이동홍 선교사의 설교, 기도제목 나눔에 이어서 합심으로 △니카라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

준비한 기도 응답 노트와 볼펜을 나누어준 후 함께 애찬을 나누었다. 어머니기도회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계

속될 예정이다.

글로벌여성목회자연합회 어머니기도회 사역은 해외와 미주를 포함해 12곳과 연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열악한 환경과 가정의 중요성이 상실되고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중남미 지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니카라과)에 어머니기도회를 오픈하고 이를 통해 성경적 가정의 가치관을 심어주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김연희 선교사가 제 1회 니카라과어머니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여성목회자연합회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엘살바도르, 콜롬비아를 방문한다.

(기사제공: 니카라과어머니기도회)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영어로 보는 성경 (2)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Genesis 12:1

1) The LORD had said to Abr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NIV 1984)

WORD & IDIOM

- * The LORD : 주, 주님. 대부분의 한글성경이 '여호와'로 되어있는데 이는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 역본을 따른 오래된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leave ~ : ~ (장소, 사람, 물건, 업무 등)으로부터 떠나다.
- * your people : 너의 친척들
- * your father's household : 너의 아버지의 가정(한 집에 사는 사람들)

GRAMMAR

● The LORD / had said / to Abram.
주님께서 말씀하셨(었)다 아브람에게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 had + pp(과거분사)는 이전에 일어난 일, 상태 등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과거의 어느 시점이란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서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람이 떠난 때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는 다음표(" ") 안에서 현재시제로 설명하고 있다.

1절의 문장은 (" ")안의 내용이 had said () to Abram에서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S+V+O의 3형식의 문장이다. 참고로 뒤의 전치사 + 명사 즉 to Abram(아브람에게) 은 기본 문장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이 명령형 문장에서 "the land"는 I will show you()의 4형식 문장 즉 S(주어) + V(동사) + IO(간접목적어 / ~에게) + DO(직접목적어 / ~을·를)에서 DO의 자리에 들어갈 목적격 명사(지명)이다. 이와 같은 목적격 명사가 문장의 주어 앞에 놓일 경우 그 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whom, which, that 등)로 받아 문장을 완성하게 되며 이 경우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가능하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할 때마다 해 나갈 것이다.

● "Leave your country, / your people, / and / your father's household / and / go 떠나라 너의 나라를 너의 친척들을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가정을 그리고 가라 / to the land / (that) / I / will / show / you." 그 땅으로 내가 (V)할 것이다 보여주다 너에게 → 네 나라와 네 친척들과 네 아버지의 가정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STUDY & THOUGH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은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리고 떠나야 할 친척들은 그 지역에 살던 셈의 후손을 가리키며, 아버지의 가정(집)은 아브람의 친 혈육인 아비와 그 형제 일가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하신 떠남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 젖어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을 좇는 자가 해결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다. 하나님을 좇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목사가 전할 일(딤후4:14-16상)찬173장

교회에 주어진 특별선물인 목사는 무엇에 전념해야합니까? 첫째, 목사안수로 받은 지위를 존귀히 여겨야합니다(14). 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직임을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목사의 부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려면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위를 교회에서 행사할 위치에 있는 탁월한 직분입니다. 둘째, 설교사역에 전심전력해야합니다(15). 이 탁월한 사명 중 설교는 그가 받은 제일의 사명입니다. 셋째, 자기성숙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합니다(16). 목사는 교회의 본이어야 하므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합니다. 새해에 교회의 목사님의 지도를 성실하게 따르십시오.

화 권고하는 방법(딤후5:1-2)찬260장

아무리 진리의 길을 알지라도 잘 적용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권고사역을 어떻게 잘 행할 수 있습니까? 첫째, 늙은이를 부모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1-2). 부드러운 말이 뼈를 녹이는 것처럼 숨은 사랑의 권고가 그들을 그릇된 자리에서 돌리키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1). 이것 역시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사랑으로 행할 때 열기왕성한 그들을 진리로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려는 사도의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젊은 여자를 자매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2). 남녀 간의 관계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하는 교회생활에서 여전히 경건의 능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상황에 맞춰 잘 적용해야 합니다.

수 과부를 가르치는 방법(딤후5:3-7)찬172장

사도는 교회의 구성원 중 과부들을 구제하는 지침을 보여줌으로 교회의 공회사역에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과부들을 대하라 가르칩니까? 첫째, 참 과부를 존대해야 합니다(3). 인생 경험 속에 남편을 여윈 과부가 끈고 속에 지켜온 신앙생활은 존중해야 할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행상을 나타내 온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경건은 84년의 고독의 세월 속에 아기 예수를 만나 보는 특권과 그를 증거하는 성령의 도구가 됐습니다(7절). 둘째, 그 자녀로 집에서의 효를 다하게 해야 합니다(4). 가정여건상 과부의 자녀들이 방종하기 쉽기 때문에 목사는 의도적으로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셋째, 향락을 경계해야 합니다(6).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합니다.

목 가족의 책임(딤후5:8)찬305장

가정은 작은 천국과 같다는 가르침은 성령이 만드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가정의 건강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가족을 돌보는 목회의 시작이고 연장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건강한 목사가 가정의 건강을 목회로 이끌며 또 건강한 목회는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둘째, 믿음을 배반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가정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는 세속적 삶은 건강한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정식구들 개인이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경건시간에 힘쓰는 자만이 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가정보다 신자의 가정이 영적인 은혜와 경건의 흐름 속에 천국의 맛을 누리는 것이기에 복됩니다.

금 참 과부의 자격기준(딤후5:9-10)찬260장

사도는 교회의 참 과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 모든 일을 불평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 중에서 과부를 돌아보는 참 경건의 원리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합니다(9). 보통 60세 이상을 살아야 철이 들고 인생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삶을 통해 참 연합과 고통 곧 교회의 연합을 경험했기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행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권사에 해당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양육, 나그네의 대접, 성도의 발을 씻기며 그리고 환난 받는 자를 구제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경건의 본을 가진 자를 찾는 일입니다.

토 젊은 과부를 권면함(딤후5:11-15)찬176장

젊은 과부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결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권합니까? 첫째, 젊은 과부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교회의 성결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11-12). 둘째, 계엄으로 말의 절제를 잃기 쉽습니다(13). 교우의 집을 돌며 말을 퍼트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사도는 재혼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14-15). 남편의 사망으로 당한 생활의 위기는 그리스도 안의 재혼으로 치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의지하기보다 친척이 돕도록 연결시켜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전 7: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티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원아: 오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원아: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8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오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일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성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아침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100 ■ N.Y.: Tel: (718)886-4444 Fax: (718)886-0100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하나님 주신 사명, 건강한 리더십으로 펼쳐나간다!

리더십저널, 로버트 클린턴의 삶속에 펼쳐진 리더십 특징 6가지 소개

모든 리더들은 동시대의 모델이다.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사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 리더들의 멘토가 된다. 리더는 본이 되는 모델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통해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며, 엘리야의 겔옷처럼 삶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풀러 신학교에서 30년 넘게 리더십을 연구한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삶과 사역에 있어 대표적 리더십 시나리오를 통해, 그리고 100여명의 성경 인물에 대한 리더십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길을 가르쳐준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영향력을 준 리더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여섯 가지 특징을 확인했다. 리더들은 대개 그들의 삶에서 4-6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모판삼아, 2019년 한해에는 더욱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1.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특징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의 지도자는 다니엘이고, 신약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요한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친밀한 어조와 서신,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은혜와 믿음을 보라.

2.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와 삶의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운다.

다니엘은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약의 지도자다. 다니엘 9장을 보면, 그의 생애 말기에도 그는 계속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약의 지도자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마치며 영원한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가르쳤다(벧후3:18).

3.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바울의 삶에 일어난 성품



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주목해야한다. 그는 리더십 스타일에서 강하고 거칠고 강한 성격이었지만, 평생에 걸쳐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했다(딤후2:24과 그것을 보여주는 빌레몬서 참조).

4.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에서 하나님

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고백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수23:14 참조).

5. 하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유종의 미를 거둔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긴 유산들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13가지 목록들을 확인했다. 다니엘의 궁극적 공헌은 성자, 멘토, 작가, 안장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울은 성자, 멘토, 개척자, 개혁자, 작가, 주창자를 포함한다.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긴 13가지 유산

△성자(Saint):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된다.

△독창적 사역자(Stylistic Practitioners):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역의 모델이 된다.

△가족(Family):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남긴다.

△멘토(Mentors): 광범위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결과물은 변화된 삶이다.

△대중적 설교자(Public Rhetoricians):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결과물은 변화된 삶이다.

△개척자(Pioneers):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결과물은 개척된 교회, 새로운 운동,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다.

△설립자(Founders): 새로운 그리스천 조직을 시작하는 선구자의 특별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안정자(Stabilizers): 교회, 운동, 조직에 동참하면서 공동체에 개선점과 활력을 심어주고, 안정케 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이다.

△연구가(Researchers): 그리스천들이 사역하고 노력하는 방식에 근원적인 사유를 밝혀내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그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Writers): 그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념화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기록된 작품이다.

△주창자(Promoters): 사람들에게 어떤 관념을 사용하게 하고, 운동 등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6.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

사명의식은 리더가 어떤 경험이나 연속적인 경험들에서 생기는 내적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리더의 삶을 평생에 걸쳐 준비시키고, 그 리더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점차적으로 완성해 가신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성취한 성경 속의 리더들은 누구도 그 사명의식을 놓치지 않았고, 평생에 걸쳐 대개 자신의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해 나갔다. 새해로 접어들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섬기고 있는 교회공동체를 통해 알게 열매 맺도록 달려보라!

그리스도 닮은 성품...삶 속에 영적 유산 남겨 사명의식 놓치지 않고 갈수록 확신 갖고 감당

△개척자(Crusaders):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개선된 제도나 사회 등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

△예술가(Artists): 일하는 방식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모든 일에 창의적이고 색다른 방식으로 모델을 제시한다.

희망은 공포 증오 극복하게 하는 증후군!

(3면에서 계속)
그러나 희망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맞다. 가족이 병들어 입원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낮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반면 확률은 대단히 높지만 그래도 공포와 숨 막히는 듯 한 불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연결된 증후군이기도 하다. 저명한 젊은 여성 철학자 아드리엔 마틴이 저술한 '우리는 어떻게 희망하는가(How We Hope: A Moral Psychology)'는 이에 관한 명저다.

희망은 행동하려는 성향을 갖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두려움이 생기면 달아나

머리를 파문으려는 행동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희망을 갖는다면 자신이 뛰어들어 이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 노력한다.

희망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희망을 좇아 공직에 출마하거나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공포와 절망에 빠져 앉아만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 정신과 마음의 습관으로 마음 속에 희망을 키우면 공포 증후군보다 그런 희망을 품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희망을 품는 실용적인 습관 몇 가지를 든다면?

저마다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거나 항의 시위에 가담

하거나 신앙을 갖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분명 내가 거주하는 시카고에선 흑인 교회가 지역 사회에 희망의 중심지다. 우리 예배당은 사회적 정의를 지향한다. 각자가 커뮤니티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교회 뒷밭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해 빈민에게 공급한다.

한 가지 큰 불변 요소는 엄청난 희망의 양성소인 예술이다. 어떤 작품이든 아주 음울하더라도 예술가는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더 깊은 이해에 이르도록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한다.

곧 아서 밀러의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에 관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의 파괴에 관한 무서운 연극이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뭔가를 우리 커뮤니티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예

술가들은 포용력 있는 인간의 비전을 그린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으며 그런 태도가 희망의 습관을 길러준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인문학 교육은 매우 훌륭한 시민정신 학교다. 상상을 자극하면서도 소크라테스 철학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철학은 우리를 합리적이고 정중한 토론 모델로 이끈다. 철학 강의를 듣는다면 누군가에게 고함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해부하면서 그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려 애쓸 것이다. 합리적이고 정중한 숙고의 습관을 갖게 되며 그것이 중요한 희망 훈련이다.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냉소주의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지 한마디 한다면?

모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너무 자기 방어적이지 않은 키케로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어렵고 고통이 따르며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흔쾌히 즐거움 마음으로 행동한다. 정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나는 냉소적인 반응에 아무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 모든 게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요즘의 냉소주의는 그 의미가 고대 권유학파(Cynics)와 완전히 다르다. 나처럼 현세가 우리의 유일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이 무가치하다면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던 말인가? 세상에는 사람·자연·동물 등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 천지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우리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INVITATION

은대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예배

Greetings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cordially invite you to join us at the Special Service
for the Presidential Inaugural Ceremony of The Korean Christian Pres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 신문사에서는
미주 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 예배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위로, 격려, 축하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January 26, 2019, Saturday, at 6:00pm

Oxford Palace Hotel
745 South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9.8000

예약: 323.665.0009



이임 장영춘 목사



취임 김성국 목사

*예배후 만찬과 자그마한 선물이 준비 됩니다.